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준

2013년 8월

중학교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분석

지도교수 전 영 준

김 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김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An Analysis on the Lesson IV of the Middle School  
History (1) Textbook, Foundation and Transformation of  
Goryeo

Kim, June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3 . 8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사 검토 .....	2
3.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연구 방법 .....	5
II .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형식 분석 .....	10
1.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목차와 분량 .....	10
1) 저자 .....	10
2) 목차 .....	11
3) 분량 .....	14
2.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편재 분석 .....	15
1) 대단원 도입 .....	15
2) 학습목표와 발문 .....	20
3) 탐구활동과 확인학습 .....	23
4) 대단원 마무리 .....	27
III .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중단원 서술 분석 .....	30

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	30
1)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있어 발해 유민 포용이 갖는 의미 .....	31
2) 고려 국호 제정에 있어 고구려 계승의식과 영토 회복의 노력 .....	33
3) 후삼국 통일 과정 .....	35
4) 광종의 왕권강화 정책 .....	36
5) 왕사·국사제도 .....	39
2. 통일 체제 정비와 고려의 대외관계 .....	40
1) 중앙 정치 체제 정비 .....	41
2) 지방 행정 체제의 정비 .....	43
3) 귀족 중심의 사회 .....	44
4) 개방적 사회와 과거제 .....	46
5) 거란과의 전쟁 .....	48
6) 대외 교류 .....	49
3.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의 봉기 .....	53
1)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	53
2) 무신 정변 .....	55
3) 사대부 계층의 형성 .....	57
4.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자주화 노력 .....	60
1) 고려가 장기간 항쟁을 벌일 수 있었던 대내외적 요인 .....	61
2) 고려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	63
3) 권문세족 .....	67
4) 신진사대부 .....	69
5.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	72
1) 고려청자 .....	73
2) 고려불교 .....	75

3) 인쇄술 대장경과 금속활자 .....	85
4) 역사서 .....	89
<b>IV.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학습 보조 자료 분석 .....</b>	<b>94</b>
1. 학습 보조 자료 중 텍스트 자료 .....	94
1) 읽기 자료 .....	94
2) 좌우여백 주 .....	96
2. 삽화 및 지도의 구성 .....	97
1) 태조의 동상과 관복 .....	97
2)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	98
3) 과거제 .....	99
4) 묘청의 난과 진압과정 .....	100
5)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 .....	100
6) 최씨 정권의 농장분포도 .....	102
7) 이영의 향리 청원 .....	103
8) 사회상을 나타내는 그림/삽화 자료 .....	104
<b>V. 결론 .....</b>	<b>107</b>
<b>참고문헌 .....</b>	<b>110</b>
<b>Abstract .....</b>	<b>115</b>

## 표 목 차

<표 1> 2010·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내용체계 비교 .....	8
<표 2>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저자 비교 .....	10
<표 3> 2010·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 고려 시대 학습내용 성취 기준 비교 .....	11
<표 4>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중단원 편재 비교 .....	13
<표 5>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분량 비교 .....	14
<표 6>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문화사 분량 비교 .....	15
<표 7>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대단원 개괄 연표 비교 .....	17
<표 8>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학습 목표 및 발문 비교 .....	21
<표 9>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학습목표 주제 비교 .....	22
<표 10>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탐구활동 주제 비교 .....	24
<표 11>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확인학습 주제 비교 .....	25
<표 12>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대단원 마무리 활동 .....	28
<표 13> 『역사(1)』 IV-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집필지침 .....	30
<표 14> 고려의 발해 유민 포용 .....	32
<표 15> 교과서별 광종의 왕권강화책 비교 .....	39
<표 16> 『역사(1)』 IV-② 통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 집필지침 .....	40
<표 17> 교과서별 거란의 침략 비교 .....	49
<표 18> 교과서에 나타난 고려의 대외 교역품 .....	51
<표 19> 『역사(1)』 IV-③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의 봉기 집필지침 .....	53
<표 20>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	55
<표 21> 교과서별 무신 기구 비교 .....	58
<표 22> 『역사(1)』 IV-④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 집필지침 .....	61
<표 23> 『역사(1)』 IV-⑤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집필지침	



.....	72
<표 24>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읽기 자료 비교 .....	94
<표 25>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좌우여백 주 비교 .....	96
<표 26> 고려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사진 자료 .....	97
<표 27> 붉은 관복의 왕건 삽화 .....	98
<표 28> 관리 등용제도와 과거제 도식 .....	99
<표 29> 묘청의 난 진압과정 .....	100
<표 30>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 .....	101
<표 31> 무신집권기 최씨 정권 농장 분포도 .....	103
<표 32> 이영의 향리 청원 .....	104
<표 33> 귀족사회를 보여주는 사진·삽화 자료 .....	105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교과서는 교과가 지니는 지식이나 경험, 체계를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하여 학교에서 학습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학습목표나 기준에 따라 교과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교과서이다.<sup>1)</sup>

제3차 교육과정 이후 국사는 국정 교과서로 국가 주도하에 제작되어 학생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국정 교과서 정책은 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획일적인 역사지식을 주입시킬 위험성 때문에 학계와 교육계의 비판을 받아왔다.<sup>2)</sup>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사 교과서는 검정 체제로 변경되었다.<sup>3)</sup>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의 대강만을 제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sup>4)</sup>라고 발표하였지만, 제한된 교과서 분량에 정해진 교육과정과 집필지침을 따르다보면 교과서 서술이 진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작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

중학교 역사 과목은 고등학교와 달리 역사교육 전공교사가 아닌 비전공교사가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 비전공교사는 역사교육 전공교사와 비교해서 역사에 대한 내용지식, 교수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중학교 시기는 역사의 틀을 잡는 첫 과정이기에 정확하게 제작된 기초 학습서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1년 8월 9일 발표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09 개정 교육과

1)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133쪽.

2)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146쪽.

3) 검정 체제는 국가가 교육 내용의 큰 틀을 제시하고 저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정 교과서 체제에 비해 저자의 견해가 반영되기 쉽다.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준수 정도가 배점의 25%이다(국사편찬위원회,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안)」, 2011.8.31).

4)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과용도서(국어·도덕·역사·경제) 집필기준 확정·발표」, 2011.11.8.

정으로 『역사』 교과서가 새롭게 제작되었다. 2007, 2009, 2010, 2011년 등 단기간에 네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 그 어느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마다 달라지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면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계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및 『역사』 교과서 연구가 축적되는 가운데, 개정된 교육과정의 발표와 『역사(1,2)』 교과서가 발행됨에 따라 개정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2011년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정된 교육과정의 특징과 교육과정이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틀을 제시하는 동시에 교과서 서술에 대한 대강의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분석하기 이전에 교육과정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역사(1)』 교과서 중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이 교육과정에 입각해 얼마나 충실하게 저술되었으며, 이전 『역사(상)』 교과서의 고려 시대 서술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고려 시대는 두 개의 대단원이 한 단원으로 축소되고, 학습목표도 9개에서 5개로 감소하는 등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셋째, 저자들과 검정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역사(1)』 IV단원의 오류를 찾고 바른 서술방법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교과서의 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1,2)』 교과서는 개정안이 발표된 후 짧은 기간에 제작되고, 이듬해 바로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교과서 제작에 비해 짧은 기간으로 그로인한 오류 발생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 2. 연구사 검토

근대적인 교육과정체계가 도입된 이래 교과서 연구는 역사과목 뿐만 아니라 전 교과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역사』 교과서 중 고려 시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역사교육연구회에서 발행한 『歷史敎育』 44호(1988년)에 수록된 정치·군현

제·사상사·대외관계·경제제도에 대한 연구이다.<sup>5)</sup> 이후 간헐적으로 교과서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교육대학원 학위 논문들이 주가 되었다. 교과서 연구는 주로 교과서가 새로 발행될 때마다 이루어지는데 근래에 들어올수록 그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교과서 연구 중 고려 시대에 관한 연구 주제는 불교, 대외관계, 남·북한 교과서 비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는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시대로, 건국에서부터 멸망까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불교 관련 연구는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과 보조국사 지눌의 조계종에 관련된 최근 학설의 검토를 통해 교과서에 서술된 역사상과 교육과정별 서술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sup>6)</sup>

대외관계 분야는 거란(요), 여진(금), 몽골(원), 홍건적과 왜구 등 주변국의 침략도 있었지만, 개방적 태도로 주변국과 문화교류를 시행하여 멀리 아라비아에까지 한국(코리아)을 알리는 시기였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발표된 연구를 살펴본다면, 김구진(1985)의 논문 이후 대부분 대외관계사 연구는 교류보다는 전쟁에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 
- 5) 朴龍雲, 「高麗時期 中央政治體制에 대한 研究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朴宗基, 「高麗時期 郡縣制 研究成果와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金鎔坤, 「高麗時期 思想史 研究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金九鎭, 「高麗時期 對外關係의 研究方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李炳熙, 「高麗時期 經濟制度 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 6) 朴미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고려불교사 서술의 검토 : 천태종과 조계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황인규, 「中等 國史教科書에서의 高麗後期 佛敎史 敍述과 그 問題點」, 『역사와 교육』9, 역사와 교육학회, 2000; 박민정, 「제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중세문화 중 불교사상과 신앙 서술내용검토 : 불교사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은혜,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고려시대의 불교관계 서술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은희, 「의천과 지눌에 관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의 분석 : 5, 6,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7) 金九鎭, 「중등학교 國史教科書에 있어서 北方關係敍述」, 『歷史教育』37-38, 歷史教育研究會, 1985; 金九鎭, 「高麗時代 對外關係의 研究方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안홍진,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 분석 : 고려시대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유화정, 「국사교과서 고려시대 대외관계사의 담론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선희, 「13세기 고려민의 대몽동향과 국사교과서의 서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지애, 「제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려의 대외관계 서술 내용 검토」,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유지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한중관계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 : 원간섭기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은숙, 「고려-거란 전쟁에 대한 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홍민, 「초등 사회과 교과서 대외 관계 역사 서술의 내용 분석 : 6학년 1학기 고려시대 국난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민유미, 「2009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고려 대외관계 내용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윤용혁·문경호, 「국사 교과서 속의 몽골 관련 서술」, 『교과교육연구』15-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1; 천은수, 「오개념을 형성하는

북한에서는 고려 시대를 외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진정한 민족통일을 이루어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연구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술형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들로 통사적 서술 비교분석에서부터 대외항쟁, 무신정권, 인물에 대한 주제별 서술 비교까지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up>8)</sup>

정치사 부분에서는 태조 왕건, 무인정권, 공민왕 등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있었지만, 고려 시대 전체를 놓고 정치 체제 변화과정에 대한 서술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sup>9)</sup> 교과서 편성에 따른 단위 서술을 분석한 논문도 상당히 있었다.<sup>10)</sup> 그 외에 경제사·사상사 연구<sup>11)</sup>, 다문화적 관점 연구<sup>12)</sup>, 탐구활동 평가<sup>13)</sup>,

고려-거란관계 역사 교과서 분석], 『역사교육연구』14, 한국역사교육학회, 2011; 장유리, 「중학교 역사(상) 교과서의 고려시대 대외관계 서술에 대한 내용분석 : 다원적 역사이해의 관점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8) 윤경운, 「고교국사교과서(50~80年代)의 내용에 관한 연구 : 고려시대 인물의 분석작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홍영의, 「북한 《조선전사》의 서술경향과 그 성격 : 고려 대외투쟁사를 중심으로」, 『군사』27, 국방군사연구소, 1993; 박의동, 「남북한 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외숙, 「북한 중등교과서의 고려시대사 서술 내용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일구, 「남북한 국사 교과서 고려시대 서술 비교 : 중학교 『국사』와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창수, 「南北韓 現行 中等 國史 教科書 比較 分析 : 先史時代에서 高麗時代까지」,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노보영, 「남북한 국사교과서의 고려사 서술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홍미경, 「南北韓 國史教科書의 敘述 比較 : 高麗時代를 中心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경미, 「북한 역사 교과서의 고려시대사 서술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윤미, 「남북한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대외항쟁사 비교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형준, 「남북한 중학교 교과서의 고려시대 대외항쟁사 서술체제와 내용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철규, 「남한의 7차 교육과정 중등 『국사』와 북한 고등중학교 4학년용 『조선력사』(2001)의 비교 분석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9) 朴龍雲, 「高麗時代 中央政治體制에 대한 研究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敘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硏究會, 1988; 朴宗基, 「高麗時代 郡縣制 硏究聖果와 『국사』 教科書의 敘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硏究會, 1988; 장정근, 「고려 무인정권에 대한 연구현황과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남인국, 「국사교과서의 서술과 고려시대 정치세력 연구동향」, 『역사교육논집』23-24, 역사교육학회, 1999; 김인호, 「제7차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려시대 정치사 내용 분석과 개선 방향」, 『역사와실학』36, 역사실학회, 2008; 최지은, 「『고려사』와 교과서 서술 비교분석 : 묘청의 난과 삼별초의 난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서인원,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의 비교 분석 : 6차·7차 교육과정 고려시대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26, 역사실학회, 2004; 강민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공민왕대 개혁정치 서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0) 장강석, 「초등학교 교과서의 고려시대사 내용 분석 6학년 1학기 :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백정화, 「교과서 변천과정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려시대 서술」,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서영,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고·중·세 문화사 단원의 서술내용 검토」,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배정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화사' 내용 구성 방식 검토」, 『역사와교육』3, 역사교육연구소, 2011; 장희홍, 「기획논문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상)』의 고려시대 서술체제와 내용 분석」, 『동국사학』51, 동국사학회, 2011; 류길호, 「고려시대 해상활동과 초등 사회교과서의 고려시대사 서술」,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1) 이병희, 「高麗時代 經濟制度 硏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敘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硏究會, 1988; 金鎔坤, 「高麗時代 思想史 硏究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敘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硏究會, 1988; 한예진, 「고려 수취제도 관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문윤석, 「6차·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내용 비교분석 : 고려시대 사회·경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계열성 연구<sup>14)</sup>, 삽화분석<sup>15)</sup> 등이 있었다.

### 3.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연구 방법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인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sup>16)</sup>라는 개정 목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다.

첫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체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1학년에서 9학년까지 공통 교육과정으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칭과 범위가 변경되었다. 9학년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현실에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10학년까지로 정하게 된다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완료할 수 없다는 문제와 10학년까지의 공통과정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란을 종식시켰다.

둘째, 교과별 수업시수를 20%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와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기존의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편성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교과군별 기준 시수·이수 단위를 제공하여 단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율권을 부여하고 집중이수제를 활성화시켜 수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토론, 실험 중심으로 수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sup>17)</sup> 집중이수제는 학교별 학업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취도가 우수한 교과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성취도가 부족한 교과에 대해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학 입시가

12) 이지홍·박현숙, 「다문화 관점에서 본 중학교 <역사(상)> 교과서의 '귀화인' 서술과 인식」, 『교과교육연구』 4-2,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1.

13) 강현욱·김민정, 「논문 : 역사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평가 연구 - 중학교 『역사(상)』 고려 단원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49, 역사교육학회, 2012.

14) 배기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의 계열성 연구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5) 유혜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려시대 삽화자료 분석 : 6차와 7차 교과서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6)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12. 17.

17)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12. 17.

중요시되는 현실상황에서 주요 교과로 인식되는 국어·영어·수학의 수업증가로 인한 다른 과목의 수업시수 하향조정이나 시험을 치르지 않는 과목을 저학년에 배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과목을 고학년 과정에서 집중이수하는 편법적 운영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업량 감소 효과와 토론, 실험 중심의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역사과목에서는 10학년이 국민공통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10학년 『역사』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그 위상이 하락하였다. 역사 과목의 선택 수가 4개로 증가하였는데, 10학년 『역사』와 『한국문화사』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 과목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 『한국문화사』가 폐지되었다. 그 결과 선택과목은 3개로 유지되었으며, 교과목 명칭도 『역사』에서 『한국사』로 『세계 역사의 이해』에서 『세계사』로 각각 바뀌게 되었다. 각 과목의 기본 이수 단위 수가 5단위로 조정됨에 따라 선택과목의 기본 이수 단위로 종전의 6단위 증감에서 5단위 증감으로 축소되었다.

2010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사과의 목표는 유지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10학년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학습의 연계가 단절되었음에도 과목명과 단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과정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8-9학년의 역사와 10학년 역사는 분리되었고<sup>18)</sup> 각기 완성된 형태를 갖추어야 했다. 검정심사 중이었던 중학교 『역사(상)』의 단원편제는 유지하고, 중학교 『역사(하)』에서 대단원 민족운동의 전개를 추가시켜 근현대사 부분을 확대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기존의 대단원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을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로 수정하고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대단원을 추가하여 전근대사를 확대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를 추가하고 세계와 우리의 미래를 삭제하여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하였다. 내용요소 수정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각각의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sup>19)</sup>의 특징은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와 적정화, 국

18)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9학년까지는 『역사(상, 하)』전근대사를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소략하여 서술하였고, 10학년 『역사』는 전근대사를 소략하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가· 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고교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고등학교 『한국사』의 필수 과목화이다. 세부 사항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와 적정화는 교과(군)별 성취기준 수 감축과 교과 간 내용의 연계 및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학습내용을 20% 감축 조정하였다. 둘째, 고교 선택과목의 재구조화로 이전의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폐지하고 선택과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선택의 비중이 낮은 과목을 폐지하고 과목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조정을 통해 교과 선택과목수를 20% 축소하였다.

2011 부분 개정교육과정에서 역사과목 개정 배경은 개방적이고 진취적 역사 인식 제고의 필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의 정체성 제고, 역사과 학습 내용 및 분량, 수준의 적정화 였다. 개정 방향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내용강화, 필수학습요소 중심 학습량 적정화, 학교급별 중복요소 및 내용 위계성 조정 이었다.<sup>20)</sup> 이에 따라 역사과 구체적 목표에 수정이 이루어졌다.<sup>21)</sup>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와 문화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문화 창조의 능력을 함양한다는 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실제로 역사 문화 유적지 또는 박물관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적 창의력 발달에 기여하고자 했다. 체험학습은 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각 단원별 현장답사 형식의 읽기자료 또는 탐구 활동이 추가되었다.

이 과목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문화적 창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sup>22)</sup>

19)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은 부분적으로 과목별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총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1년 수정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 이라 서술하였다.

20)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교과교육과정개정의 이해」, 2012. 10. 9.

21) 2011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보면 역사교육 강화 방안 에서 의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역사 내용의 계열성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문기·남한호, 「특집 : 새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활용방안 모색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역사 교육, 그리고 이후의 변화」, 『역사교육논집』47, 역사교육학회, 2012, 17쪽).

22)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부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73쪽.



위 인용문은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과 목표의 특징 중 일부이다. 중학교 역사의 성격에서 경제사와 사회사를 축소하고 정치사와 문화사를 강조하였다. 이는 교과서 단원편성 및 성취기준<sup>23)</sup>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0 부분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단원의 제목이 변경되고 내용요소를 감축하여 학습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재구성된 역사과목의 내용체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010·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내용체계 비교<sup>24)</sup>

2010		2011	
8 학 년 『역 사 (상)』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li> <li>○ 삼국의 성립과 발전</li> <li>○ 통일신라와 발해</li> <li>○ 고려의 성립과 발전</li> <li>○ 고려 사회의 변천</li> <li>○ 조선의 성립과 발전</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종교의 등장</li> <li>○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li> <li>○ 교류의 확대와 전통사회의 발전</li> </ul>	전 근 대 사 『역 사 (1)』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li> <li>○ 삼국의 성립과 발전</li> <li>○ <b>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b></li> <li>○ <b>고려의 성립과 변천</b></li> <li>○ 조선의 성립과 발전</li> <li>○ <b>조선 사회의 변동</b></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제국의 등장</li> <li>○ 지역세계의 형성과 발전</li> <li>○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li> </ul>
9 학 년 『역 사 (하)』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사회의 변동</li> <li>○ 근대국가 수립 운동</li> <li>○ 민족 운동의 전개</li> <li>○ 대한민국의 발전</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와 국민국가의 형성</li> <li>○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운동과 근대국가 수립 운동</li> <li>○ 현대 세계의 전개</li> </ul>	근 현 대 사 『역 사 (2)』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근대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b></li> <li>○ 민족 운동의 전개</li> <li>○ 대한민국의 발전</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와 국민국가의 형성</li> <li>○ <b>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b></li> <li>○ 현대 세계의 전개</li> </ul>

2010 부분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영

2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중학교 역사의 성취기준이 <한국사 영역>은 50개에서 42개로 <세계사 영역>은 35개에서 27개로 약 20% 감소하였다.

24)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임.

역은 10개에서 9개로 감소하고 세계사 영역은 6개로 유지하여 한국사와 세계사의 영역비율이 3:2가 되었다. 두 개의 대단원으로 나누어 학습했던 고려 시대를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 단원으로 통합하였다. 조선사회의 변동을 『역사(1)』로 이동시킴으로써 『역사』 교과서 1, 2권을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국권 수호 운동을 추가하여 자주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8월 9일 발표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역사(1)』 교과서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분석으로,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서술된 『역사(1)』 9종 교과서<sup>25)</sup>를 분석하였다.

II장에서는 『역사(상)』<sup>26)</sup> 『역사(1)』 교과서의 고려 시대 형식분석을 통해 이전 교과서에 비해 『역사(1)』 교과서의 달라진 점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의 중단원 본문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IV장에서는 학습 보조 자료 분석을 통해 본문 이외의 학습 보조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지 분석하겠다. V장은 결론으로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과 새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장·단점을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교과서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25) 양호환 외 7인, 『역사(1)』, (주)교학사, 2013; 김형중 외 12인, 『역사(1)』, (주)금성출판사, 2013; 이문기 외 19인, 『역사(1)』, 두산동아(주), 2013; 정선영 외 8인, 『역사(1)』, (주)미래엔, 2013; 조현욱 외 10인, 『역사(1)』, (주)비상교육, 2013; 한철호 외 11인, 『역사(1)』, (주)좋은책 신사고, 2013; 정재정 외 10인, 『역사(1)』, (주)지학사, 2013; 김덕수 외 13인, 『역사(1)』, (주)천재교과서, 2013; 주진오 외 13인, 『역사(1)』, (주)천재교육, 2013.

26) 신영범 외 11인, 『역사(상)』, (주)교학사, 2010; 양호환 외 8인, 『역사(상)』, (주)교학사, 2010; 조승래 외 9인, 『역사(상)』, 대교, 2010; 이문기 외 16인, 『역사(상)』, 두산동아, 2010; 정선영 외 7인, 『역사(상)』, (주)미래엔, 2010; 조현욱 외 10인, 『역사(상)』, (주)비상교육, 2010; 정재정 외 7인, 『역사(상)』, (주)지학사, 2010; 주진오 외 8인, 『역사(상)』, 천재교육, 2010.

## II.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형식 분석

### 1.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목차와 분량

#### 1) 저자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검정 때마다 동일한 출판사와 저자가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교과서를 만들었던 저자와 출판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출판사와 저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번 중학교 『역사(1,2)』 교과서 검정에서는 지난 검정에 비해 1종이 증가한 9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출판사별로는 금성, 신사고, 천재교과서가 새롭게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대교는 『역사(1,2)』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sup>27)</sup>

<표 2>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저자 비교<sup>28)</sup>

	『역사(상)』		『역사(1)』	
	IV단원	V단원		IV단원
교학사(신)	주경식 정병삼 허차진 김수현	김진규 신영범 허차진 김수현	교학사	김보림 김효정
교학사(양)	윤성애	김효정		
	-		금성	박진훈
대교	김규대	김나영	-	
두산동아	장동익 민경택		두산동아	장동익 김돈호
미래엔	김종수	이예선	미래엔	이예선
비상교육	안선미	이종서	비상교육	이종서
	-		신사고	전영준
지학사	박찬석	장종근	지학사	김태식 강성주
	-		천재교과서	김민정
천재교육	김인호	안효숙	천재교육	김인호 백유선 안효숙

『역사(상)』과 『역사(1)』 모두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 중에서 지학사는 고려 시대 저자가 바뀌었으며, 교학사·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은 『역사(상)』

27)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교과용도서(역사) 검정 분심사 결과 안내에 따르면, 2012년 교과용도서 검정에 9개 출판사가 검정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검정에 합격하였다.

28) 교수는 진하게 표시함. 이외는 교사.

교과서 제작에 참여했던 저자가 『역사(1)』에도 참여하였다. 고려 시대 저자를 살펴본다면 『역사(상)』에서는 8종의 교과서 중 절반 이상인 5종이 교수·교사가 공동<sup>29)</sup>으로 집필하였다. 『역사(상)』의 경우는 대단원이 두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교수와 교사의 공동 제작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1)』에서는 9종의 교과서 중 8종이 교수·교사 공동 혹은 교수 단독으로 집필하였다. 교사 혼자서 집필한 미래엔의 경우는 『역사(상)』의 집필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다. 『역사(1)』의 저자 분석 결과 이전 교과서에 비해 전문 연구자들의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 저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목차

국가주도의 교과서 발행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면서, 검정 교과서의 자율성은 보장되었지만, 그 틀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것은 국가가 교육과정을 통해 『역사』 교과서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집필지침과 단원편성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표에 따라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만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2010·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 고려 시대 학습내용 성취 기준 비교<sup>30)</sup>

2010	2011
<p>(4) 고려의 성립과 발전 후삼국 통일과 그 이후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가 가져온 정치·사회 변화와 대외 관계의 추이를 다룬다. 고려의 통일이 호족 세력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제도 정비를 통해 귀족 중심 사회로 변화하였음을 안다.</p> <p>(5) 고려 사회의 변천 무신 정변 이후에 나타난 고려 사회의 변화를 다룬다. 무신 정변과 농민·천민의 봉기를 거치며 귀족 중심 사회가 변화하였음을 인식한다. 대몽 항쟁 이후 지배 세력의 변화를 국제 정세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그에 따른</p>	<p>(4) 고려의 성립과 변천 후삼국 통일과 고려 전기의 제도 정비, 무신 정변 이후 고려 후기 사회의 변천을 다룬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갖는 의의를 이해하고, 고려 전기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한다.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의 변화를 이해하고, 고려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살펴본다.</p>

29) 『역사(상)』의 경우는 고려 시대가 전후기 두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단원 형식이 유사하고 같은 시대를 서술하는데 저자간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서 공동 집필로 서술하였다.

사회·문화의 변화 모습을 파악한다.	
(4)-① 고려의 통일은 후삼국 통합과 발해 유민 포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	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태조의 정책을 통해서 고려의 통일이 지니는 의의를 파악한다.
(4)-② 고려 전기의 제도 정비를 통해 귀족 중심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한다.	② 고려 전기 정치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이해하고, 대외 관계를 전쟁과 교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4)-⑤ 고려의 대외 관계를 전쟁과 문물 교류의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5)-①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 봉기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③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 봉기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고려의 지배 체제가 동요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5)-② 대몽 항쟁 과정을 알고 반원 자주화 노력을 설명한다.	④ 대몽 항쟁의 과정, 원 간섭기 권문세족의 성장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을 이해하고, 고려 사회의 개혁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였음을 파악한다.
(5)-④ 고려 말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여 조선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이해한다.	
(4)-④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고려 전기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한다.	⑤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고려청자, 불교 예술, 인쇄술, 역사서 편찬 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5)-③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고려 후기의 문화 변화를 설명한다.	
(4)-③ 고려 전기의 특징적인 사례를 통해 각 신분의 일상생활을 추론한다.	-

학습량 20% 감축에 따라 고려 시대는 두 개의 대단원을 전·후기로 나누어 서술 하던 것을 한 단원으로 통합하였다. 학습내용 성취기준 또한 9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제외된 사회사에 학습요소인 (4)-③ 고려 전기의 특징적인 사례를 통해 각 신분의 일상생활을 추론한다. 를 제외하고, 두 문장을 병렬하여 개수를 줄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 감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교육과정 성취요소에서 제시한 고려 시대의 개괄적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갖는 의의를 이해한다. 둘째, 고려 전기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한다. 셋째,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의 변화를 이해한다. 넷째, 고려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살펴본

30) 「[별책 7]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 교육과학기술부, 2010; 「[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2011.

31) 장희홍과 김성자는 2011년 부분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려 시대의 성취 기준의 병렬적 결합을 지적하고 있다(장희홍, 「기획논문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상)』의 고려시대 서술체제와 내용 분석」, 『동국사학』51, 동국사학회, 2011, 54쪽; 김성자,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교육내용 적정화 달론의 수용과 굴절」, 『歷史教育』121, 歷史教育研究會, 2012, 20-24쪽).

다. 단원 설명에서 나타난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의 변화를 학습요소에서는 무신 정권과 대몽 항쟁 과정과 원 간섭기를 나누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중단원 분류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내용요소에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통치 체제 정비와 고려의 대외관계,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의 봉기,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자주화 노력,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고려 시대를 정치적으로 네 시기로 구분하고 문화단원을 추가해서 단원 편성을 하였다.

<표 4>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중단원 편제 비교

교육과정	교학사	금성	미래엔	지학사	천재교과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후삼국 통일과 태조의 정책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다시 통일을 이룬 고려
통일 체제 정비와 고려의 대외관계	통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	통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	귀족 사회의 형성과 대외 관계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관계	고려 귀족 사회의 성장과 변천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의 봉기	무신 정권의 성립과 사회 질서의 동요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의 봉기	고려 사회의 변천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	고려 지배 질서의 동요
고려의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반원 자주화 노력과 새로운 세력의 성장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대몽 항쟁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원 간섭기 고려 사회의 변화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고려의 문화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변화	고려 문화의 발달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두산동아		비상교육		신사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통치 체제 정비	고려의 건국과 귀족의 형성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고려의 성립과 발전	고려의 성립과 발전
무신 정권의 농민, 천민의 항쟁	무신 정권의 성립과 농민·천민의 봉기	무신 정권의 성립과 하층민의 봉기	무신 정권의 성립과 하층민의 봉기	무신 정권의 성립	무신 정권의 성립
고려의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	대몽 항쟁의 전개와 개혁의 시도	대몽 항쟁의 전개와 개혁의 시도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변화	고려 문화의 발달	고려 문화의 발달	고려 문화의 특징과 변화	고려의 예술과 문화	고려의 예술과 문화

교학사, 금성, 미래엔, 지학사, 천재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분류대로 중단원 편성을 하였다. 두산동아, 비상교육, 신사고, 천재교육은 교육과정 내용요소 중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와 통치 체제 정비와 고려의 대외관계를 한 단원으로 묶어서 4개의 중단원으로 분류하였다. 단원 분류의 차이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내용이 왕건의 통일 과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 전기 정치 상황을 한 단원으로 묶어 서술한 것이라 판단된다. 중단원 제목에 있어서도 교육과정과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는 금성을 제외하고는 출판사별 다른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소단원의 경우 『역사(상)』에서 대교는 소단원을 생략하였고, 천재교육의 경우 중단원을 소단원처럼 세세하게 구분지어 편성을 하였다. 그러나 『역사(1)』의 경우에는 9종 모두 중단원과 소단원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 3) 분량

공통적인 대단원 소개와 대단원 마무리를 제외하면 『역사(상)』은 평균 약 51쪽, 『역사(1)』은 평균 약 33쪽으로 지면상으로는 30% 이상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내용요소의 개수와 교과서 분량면에서는 외형적인 축소가 이루어졌지만, 사회·경제사를 제외한 학습 내용은 크게 줄지 않고 서술 분량만 줄어든 상황이 되었다.

<표 5>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분량 비교

『역사(상)』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V 고려 사회의 변천	쪽/본문	『역사(1)』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쪽/본문
교학사(신)	106-137	138-169	64/56	교학사	106-147	42/38
교학사(양)	110-141	142-171	62/54			
-	-	-	-	금성	118-161	44/40
대교	106-139	140-171	66/58	-	-	-
두산동아	96-119	120-141	46/38	두산동아	92-123	32/28
미래엔	114-143	144-173	60/52	미래엔	104-139	36/32
비상교육	118-149	150-179	62/54	비상교육	114-153	40/36
-	-	-	-	신사고	106-141	36/32
지학사	104-129	130-157	54/46	지학사	112-145	34/30
천재교육	118-151	152-181	64/56	천재교과서	110-147	38/34
				천재교육	112-145	34/30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은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역사(상)』과 『역사(1)』의 고려 단원을 비교하였을 때 단원 중 문화서술 비율은 이전은 약 24% 현재는 약 25%로 비율상 특별하게 문화사 부분이 부각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요소 다섯 가지 가운데 문화와 관련된 사항은 한 가지임에도 서술 비중이 약 1/4인 것은 오히려 높은 비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6>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문화사 분량 비교<sup>32)</sup>

『역사(상)』	%	문화/전체	『역사(1)』	%	문화/전체
교학사(신)	25	14/56	교학사	26	10/38
교학사(양)	24	13/54			
	-		금성	30	12/40
대교	20	12/58		-	
두산동아	34	13/38	두산동아	21	6/28
미래엔	26	14/52	미래엔	25	8/32
비상교육	25	14/54	비상교육	27	10/36
	-		신사고	31	10/32
지학사	23	11/46	지학사	20	6/30
천재교육	21	12/56	천재교과서	23	8/34
			천재교육	23	7/30
합계	24.75	12.875/51.75	합계	25.11	8.55/33.33

## 2.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편재 분석

### 1) 대단원 도입

대단원 도입부에는 고려 시대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및 사진·삽화, 고려 시대와 동시대에 발생한 세계사 사건들이 연표로 정리되어 있다. 교수-학습과정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연표로 작성되었다. 연표는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났으며, 전후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사실들 간의 종적·횡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역사의 흐름을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3)</sup> 9종 교과서의 고려 시대 연표를 살펴보면 정치사 그중에서도 대·내외 전쟁을 중심으로 연표가 구성된 것을 확인

32) 『역사(상)』과 『역사(1)』의 전체 쪽수는 대단원도입과 단원마무리를 제외한 합.

33)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150쪽.



할 수 있다.<sup>34)</sup> 통치 체제 정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제 시행(금성·천재교육)이외 전무하였으며 문화 부분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편찬과 고려 대장경 제작, 『직지심체요절』 인쇄가 전부였다. 이것도 교학사, 금성출판사, 천재교육만이 기술하고 있을 뿐이었다.

대단원 개괄에는 연표 이외에도 단원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간단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의 표준이 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고려 시대의 개괄적 설명으로 앞서 살펴본 바 있다. 9종 교과서의 대단원 개괄을 살펴보면, 천재교육을 제외한 8종 교과서에서 고려 시대 개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up>35)</sup>

고려는 후삼국은 물론 발해의 유민까지 포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고려는 통치 체제를 정비하여 귀족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였다. 외세의 침략을 막음과 동시에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다.

고려 전기의 귀족 중심의 사회는 무신 정변으로 무너졌다.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무단 통치를 하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이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잇달아 일어났다. 무신 정권은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붕괴되었고,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고려 말 공민왕은 반원 자주 개혁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길로 나아갔다.

(교학사 106쪽)

이 단원에서는 후삼국 통일과 고려 전기의 제도 정비, 무신 정변 이후 고려 후기 사회의 변천을 배운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지니는 의의를 알아보고, 고려 전기는 정치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하고 대외 관계와 교류를 살펴보도록 한다.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 봉기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고려의 지배 체제가 동요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몽골의 침략에 맞선 민족의 항쟁, 원 간섭기 권문세족의 성장과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이해하고, 신진 사대부의 성장과 함께 지배 세력의 변화를 알아본다. 그리고 고려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살펴본다.

(금성 119쪽)

34) 일부 출판사에서는 중단원·소단원 개괄 과정에서 연표를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단원 개괄 부분에 한정하여 연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35) 천재교육은 대단원 개괄을 생략하고 파주 용미리 마에이블임상을 소개하고 있다.

<표 7>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대단원 개괄 연표 비교

	교학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918	왕건, 고려 건국	고려 건국	왕건, 고려 건국	왕건, 고려 건국
926		발해 멸망	발해 멸망	
936	고려, 후삼국 통일	후삼국 통일	고려, 후삼국 통일	고려, 후삼국 통일
958		과거제 실시		
993				
1019	귀주 대첩	고려군, 귀주에서 거란군 대파	귀주 대첩	귀주 대첩
1107	윤관, 여진 정벌	윤관, 여진 정벌	윤관, 여진 정벌	윤관, 여진 정벌
1126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
1135	묘청, 서경 천도 운동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45	『삼국사기』 편찬			
1170	무신 정변	무신 정변	무신 정변	무신 정변
1196	최충헌 집권			
1198	만적의 난		만적의 난	
1231	몽골 1차 침입	몽골의 제1차 침입	몽골 제1차 침입	
1232	강화 천도		강화 천도	
1236	고려 대장경 제작(~1251)			
1270	개경으로 환도, 삼별초 항쟁	개경 환도	개경 환도	삼별초의 항쟁
1285				
1356				
1359	홍건적 침입		홍건적 침입	
1376	최영, 왜구 정벌			
1377	『직지심체요절』 인쇄		직지심체요절 인쇄	
1388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1389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고려 멸망	조선 건국	

	비상교육	신사고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918	왕건, 고려 건국	고려 건국	고려 건국	고려 건국	왕건, 고려 건국
926				발해 멸망	
936	고려, 후삼국 통일	고려, 후삼국 통일	후삼국 통일	고려, 후삼국 통일	고려의 후삼국 통일
958					과거제 실시
993					서희, 강동 6주 획득
1019		귀주 대첩	귀주 대첩	귀주 대첩	귀주 대첩
1107		윤관, 여진 정벌	윤관, 여진 정벌		윤관, 여진 정벌
1126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
1135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45					김부식, 『삼국사기』편찬
1170	무신 정변	무신 정변	무신 정변	무신 정변	무신 정변
1196					
1198					
1231	몽골의 1차 침입	몽골, 고려 침입	몽골의 1차 침입	몽골의 제1차 침입	몽골의 제1차 침입
1232					
1236					고려 대장경 제작(~1251)
1270	개경 환도	개경 환도	개경 환도	개경 환도	개경으로 환도
1285					일연 『삼국유사』 편찬
1356					공민왕, 정동행성 폐지 쌍성총관부 함락
1359		홍건적의 침입			
1376					
1377					
1388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1389					박위, 쓰시마 섬 토벌
1392	고려 멸망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고 제도를 정비하였다. 문벌 귀족 사회와 무신 정권 시대를 거쳤으며, 원 간섭기에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전개되었다. 고려는 귀족적·불교적인 문화를 꽃피웠으며,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문물 교류를 하였다. (두산동아 93쪽)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가지는 의의를 이해하고, 고려 전기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한다. 또한,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의 변화와 하층민의 저항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고려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도 살펴본다. (미래엔 104쪽)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통치 체제 정비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고려가 귀족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였음을 살펴본다. 이후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변에 대해 알아보고, 몽골 침략의 극복 과정과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학습한다. (비상교육 115쪽)

이 단원에서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제도 정비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려 사회의 귀족적 특성 및 대외 관계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무신 정권의 전개 과정 및 농민과 천민의 봉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몽골의 침략에 대항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하여 배운다. 더불어 고려 후기에 신진 사대부 및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한 배경을 살펴본다. (신사고 106쪽)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발해 유민을 포용하면서 민족 통합과 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려 사회는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신분 간의 이동이 가능하여 신라보다 개방적인 성격을 지녔다. 12세기 후반 무신 정권이 들어섰고, 이후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저항하였으나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원·명 교체기에 추진된 공민왕의 개혁은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상이 발달하였고, 귀족 중심의 문화가 꽃을 피웠다. (지학사 112쪽)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귀족 중심의 통치 체제를 마련해 나갔다. 문신이 중심이 되었던 고려의 지배 질서는 고려 중기 이후 사회적 모순이 쌓이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결국 무신 정변으로 붕괴되었다. 한편, 고려는 북방의 거란, 여진, 몽골의 침략에 맞서 약 500년간 고려 왕조를 지켜냈으며, 중국의 송, 일본 등과 문물을 교류하면서 고려청자와 같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기도 하였다. (천재교과서 111쪽)

교학사, 금성, 신사고, 지학사의 경우 고려 후기 무신정권에서 신진사대부로의

변화를 열거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의 변화에 관한 서술이 9종 교과서 모두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sup>36)</sup> 두산, 비상교육은 공민왕의 개혁정치까지만 서술하여 신홍 무인세력과 신진 사대부에 대한 언급이 제외되어 있다. 교학사, 비상교육, 신사고에서는 고려의 문화적 특징에 관한 설명이, 천재교과서에서는 무신 정변 이후의 고려 지배세력 변화에 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비상교과서는 고려 시대의 세계사 흐름을 서술하여 동시대 세계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는지 병행하여 설명하고 있다. 천재교과서는 거란, 여진, 몽골은 고려를 침략한 민족으로 중국과 일본은 문물을 교류한 국가로 서술하여 북방 민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2) 학습목표와 발문

학습목표는 수업 시작 전 학생들에게 오늘의 학습 방향으로 제시하고 수업내용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업을 마칠 때에도 올바른 학습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학습주제를 정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그 주제에서, 또는 그 학습 범위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7)</sup>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습목표를 재확인함으로써 수업이 목표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발문이란 수업을 시작하면서 주위 환기 및 수업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질문이다. 발문의 형식이나 내용은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지만, 되도록 진행하는 수업 내용과 관계된 것을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발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레이지만, 수업시간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미래엔, 신사고, 천재교과서는 학습목표를 중단원 단위로 제시하고 나머지 교과서는 소단원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목표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

36) 교학사(42%), 금성(35%), 두산동아(50%), 미래엔(40%), 비상교육(44%), 신사고(37%), 지학사(43%), 천재교과서(41%), 천재교육(46%)

37)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215쪽.

중 배워야 할 중심 학습 내용이므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한 차시에 제시되어야 할 학습목표는 한 두 개가 적당하다.

<표 8>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학습 목표 및 발문 비교

『역사(상)』			『역사(1)』		
출 판 사	학습목표(개수)	발문단위	출 판 사	학습목표(개수)	발문단위
교학사(신)	소(18)	중	교 학 사	소(13)	중
교학사(양)	소(19)	중			
-	-	-	금 성	소(28)	중
대 교	중(27)	중	-		
두산동아	소(20)	중	두산동아	소(10)	소
미 래 엔	중(18)	중·소	미 래 엔	중(15)	중
비상교육	소(36)	중	비상교육	소(24)	중
-	-	-	신 사 고	중(8)	소
지 학 사	중(19)	소	지 학 사	소(21)	소
천재교육	중(34)	중	천재교과서	중(15)	중·소
			천재교육	소(22)	중

출판사별 학습 목표의 개수와 단위별 제시방법은 각기 달랐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중단원 단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수업 시수에 맞게 한 차시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나누어줄 수 있게 소단원 단위로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목표 수가 가장 적은 신사고의 예를 들자면 중단원 시작부분에 두 개씩 제시하기보다는 수업 시수에 맞추어 학습목표는 분배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역사(상)』에서는 미래엔과 지학사만 소단원 단위로 발문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중단원 단위로 발문을 제시하였다. 비상교육은 한 쪽 전면을 중단원 소개로 사용하였다. 미래엔은 중단원과 소단원 모두에서 발문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역사(1)』에서는 교학사, 금성, 천재교과서는 중단원 시작 전 한 쪽 전면을 삽화와 발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상교육, 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은 반쪽정도의 분량으로 삽화와 발문을 제시하고 있다.

<표 9>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학습목표 주제 비교

	교 학 사	금 성	두 산 동 아	미 래 엔	비 상 교 육	신 사 고	지 학 사	천 재 교 과 서	천 재 교 육
후삼국 통일 과정과 의의	1	2	1	1	1	1	1	1	1
태조의 정책	1	2		2	2		2	1	1
중앙 집권화 과정		2	1	1	1	1	1	1	2
귀족중심 사회 형성	1	2		1	1		1	1	
외세의 침략을 막고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	1	2	1	1	1		1	1	1
		1			1		3	1	1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1	1	1	2	1	1	1	2
무신 정변의 원인	1	1		1	1				1
무신 정권의 변화		1	1		1	1	1	1	1
농민 천민 봉기의 배경	1	2		1	2		1	1	2
대몽항쟁	1	2	1	1	2	1	1	1	2
원 간섭기 상황		1			1		1		
권문세족		1							1
공민왕의 개혁	1	1	1	1	1	1	1	1	1
고려말 혼란									
신홍 무인	1				1				1
신진 사대부		1	1	1			2	1	1
고려 멸망					1				
불교의 변화	1	1					1		
불교 문화와 특징	1		1		1		1	1	1
귀족 문화의 특징							1	1	
고려청자									1
다양한 사상과 신앙		1			2	1			
성리학		1					1		
역사서	1	1		1	1			1	1
인쇄술					1		1		1
독창적 문화예술	1	1	1	2	1	1			
과학기술		1							
계	13	28	10	15	24	8	21	15	22

두산동아, 지학사, 신사고, 천재교과서는 소단원 단위로 발문을 제시하고 특히, 천재교과서는 중단원과 소단원에 모두 발문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원에서는 만화를 넣어 학생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발문은 학습목표와 같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유용한 수업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수업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학습목표와 마찬가지로 중단원 단위로 발문을 제시하기 보다는 소단원 단위로 한 차시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3) 탐구활동과 확인학습

역사 탐구는 역사를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역사 사실이나 의미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역사를 연구하거나, 역사를 탐구할 때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8)</sup> 교과서의 탐구활동은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독자인 학생들의 역사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하여 제시한 활동이다. 따라서 탐구활동은 대상에 적합한 문제를 제공해야 한다.

탐구활동은 출판사별로 탐구활동, 탐구, 주제탐구, 역사탐구, 활동하기 등 다양한 제목으로 활동을 제시하였다. 출판사별 탐구 문제수가 많게는 21문제(미래엔)에서 적게는 4문제(신사고)까지 차이가 났다. 이것은 교과서에 탐구활동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활동 이외에도 읽기자료이지만 물음을 제시한 것도 모두 탐구 문제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탐구활동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간략히 답하거나 지문을 분석하는 자료 찾기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탐구 문제 유형은 학생들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생각을 요구하는 탐구 문제의 유형은 열린 질문보다는 묘청과 김부식, 최영과 이성계, 정몽주와 정도전으로 배치되는 온건과 사대부와 급진 사대부의 대립 등 어느 한 편을 택하여 주장을 뒷받침해보자는 문제가 많았다.

무신집권기 내가 농민이라면?(교학사), 내가 공민왕이라면?(비상교육), 거란과의 전쟁에 참여한 병사라면 여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천재교육) 이성계의 4불가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 말하기(천재교육) 등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에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활동도 있었지만, 양자택일의 한정된 상황이 다수를 이루어 학생들의 사고를 열어주는 탐구 활동 보다는 단답식 문항이 대부분이었다. 주제별 탐구 활동을 분석해본 결과 훈요 10조, 시무 28조, 서희와 강동 6주, 무신집권기 농민·천민의 봉기, 공민왕의 개혁, 고려 후기 지배층의 변천, 고려의 역사서 분석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38) 강현욱·김민정, 「논문 : 역사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평가 연구 -중학교 『역사(상)』 고려 단원을 중심으로-」, 『歷史教育論集』49, 역사교육학회, 2012, 200쪽.



<표 10>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탐구활동 주제 비교

	교 학 사	금 성	두 산 동 아	미 래 엔	비 상 교 육	신 사 고	지 학 사	천 재 교 과 서	천 재 교 육
민족통합정책	1						1	1	
후삼국통일의의의				1					
훈요10조		1	1	1	1				1
시무 28조			1	1	1 <sup>39)</sup>	1		1	
관리등용제도		1	1		1	1			
호족과 향리				1					
귀족사회 특징				1					
서희와 강동 6주			1	1	1			1	1
동북 9성		1					1		
대외관계									1
대외교류				1				1	
귀족사회 모순				1					
묘청의 난			1	1	1				
무신정변			1	2					
무신 권력기구									1
농민 천민의 붕기			1	2	1	1		1	1
무신집권기 백성의 생활	1	1					1	1	
대몽항쟁			1	1				1	1
원 간섭기 고려의 상황		1							
공민왕의 개혁	1		1	1	1		1		1
권문세족 온건파급진파 신진사대부	1	1		3	1	1		1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			1		1				1
개성		1							
고려시대 보물					1			1	
석불				1					
팔만대장경	1		1	1					
역사서분석		1	1	1			1	1	1
의천과 지눌			1						
고려청자			1						
계	5	8	14	21	10	4	5	10	9

39) 광종의 왕권강화 정책과 함께 탐구활동을 제시함.

두산동아와 미래엔은 다른 교과서와 탐구활동 수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고려의 문화 단원에서 다양한 주제의 탐구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역사서 분석이었다. 역사서 탐구활동을 제시한 여섯 교과서 가운데 금성은 『제왕운기』를 주제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섯 교과서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확인학습 주제 비교

	교 학 사	금 성	두 산 동 아	미 래 엔	비 상 교 육	신 사 고	지 학 사	천 재 교 과 서	천 재 교 육
궁예의 실정		○							
왕건정치(훈요10조)				○	○	○		○	
후삼국통일(고창전투)		○							
고려(고구려계승)	○	○		○		○	○	○	
송악	○					○	○		
친신라, 반후백제	○								
북진정책(서경)	○	○			○	○	○	○	○
호족통합정책	○	○	○	○		○	○	○	
민족융합정책(발해유민)	○	○		○	○			○	○
취민유도		○				○			
광종 왕권강화책	○			○	○	○	○	○	○
성종(최승로 시무28조, 지방관과견)	○		○	○	○	○	○		
과거(음서)		○	○	○			○		○
고려 내정기구 (중앙, 지방, 군사)		○	○	○		○	○		
향·부곡·소			○			○			
여진관계 (윤관, 동북9성, 별무반)	○	○		○			○		○
거란관계 (서희, 강동6주, 강감찬)	○	○	○	○	○	○	○	○	○
벽란도(대외교류)	○	○	○	○		○	○	○	○
문벌귀족	○	○	○	○	○	○			○
이자겸의 난	○	○	○		○	○	○	○	

묘청의 난 (풍수지리, 김부식, 서경)	○	○	○			○	○	○	○
무신정변						○			○
최씨 정권 (정방, 도방, 서방, 삼별초)	○	○	○	○	○	○	○	○	○
민란(만적, 망이·망소이)	○	○	○	○	○	○	○	○	○
강화천도	○		○	○		○	○		○
삼별초	○		○		○	○			○
대몽항쟁 (처인성, 김윤후, 충주성)			○	○	○		○	○	
원간섭(관계격하, 정동행성, 영토상실)		○	○	○					○
문화재 피해		○				○			
권문세족	○		○	○		○			○
공민왕(신돈, 전민변정도감, 반원자주)	○	○	○	○	○		○	○	○
신진사대부	○	○	○	○	○		○	○	○
쓰시마정벌		○				○			
신흥무인			○				○		
요동정벌, 위화도회군	○	○							○
최충			○			○			
의천 천태종		○	○				○		
지눌 조계종	○			○	○	○	○		
문익점							○		
최무선							○		
성리학(안향)	○	○		○	○	○	○	○	
만권당						○	○		
탑			○	○			○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			○		○	○		
풍수지리						○			
불화 수월관음도				○				○	○
나전칠기		○							
단군		○							
건축(극락전, 무량수전, 수덕사 대응전)			○		○	○			○
고려청자(상감청자)	○			○	○	○	○	○	○

직지	○		○	○		○	○		○
삼국사기		○		○			○	○	○
삼국유사			○			○			
동명왕편, 제왕운기						○			

태조의 후삼국 통일과 광종·성종의 왕권강화책, 대외항쟁 과정, 문벌귀족의 모순을 드러낸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무신정권의 등장과 민란, 대몽항쟁과 강화천도, 권문세족의 등장과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성리학은 대체로 전 교과서에서 문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문화부분에서는 청자와 직지, 삼국사기 외에도 역사서와 다양한 고려 문화재를 문제로 소개하였다.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괄호 넣기 OX문제가 다수였으며, 퍼즐판, 사다리타기 문제도 일부 제시되었다.

탐구활동과 확인학습의 주제가 겹치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주제의 중요성에 따라 문제가 중첩하는 제시되는 것이겠지만, 탐구활동이 본래의 그 목적인 탐구가 아닌 단답형의 문제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주제 보다는 탐구활동과 확인학습의 영역이 분리가 필요하겠다.

#### 4)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정리는 지금까지 배운 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단원 중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설명하고 못하는 부분을 다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단원 내용 정리 이외에도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여러 형식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대단원 마무리는 단원을 학습내용 정리와 활동하기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단원 마무리 활동에서 교과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은 앞서 확인학습에서 검토한 것을 대신하고, 각 교과서별 어떠한 활동을 제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겠다.

『역사(상)』에서는 초성·중성·종성 퍼즐, 댓글을 보고 알맞은 단어쓰기, 시를 읽고 일기 써보기, 역사재판, 신문 만들기, 포스터 제작하기, 연극하기, 주사위 보드게임, 지배 계층의 뇌구조 그려보기, 인물 보고서 쓰기, 방송 뉴스 대본 만들기, 그림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고 스토리 만들기, 왕의 입장에서 편지쓰기, 연설문 작성하기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표 12> 『역사(상)』·『역사(1)』 고려 시대 대단원 마무리 활동

『역사(상)』	대단원 마무리 활동하기
교학사(신)	시간·공간·재미로 익히기
교학사(양)	농민의 하루 생활을 일기쓰기
	묘청에 대한 역사 재판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관한 신문 기사를 작성 고려 후기 문화재를 조사한 후 홍보자료 제작
	대교
대교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혼인 풍습 조사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의 풍습을 조사 목화의 전래 과정과 우리 생활의 변화를 조사
두산동아	고려 시대의 신분별 특징을 포스터로 작성하기
	고려 시대 농민과 천민의 봉기를 연극으로 만들기
미래엔	역사 가상 일기 쓰기
	역사 신문 만들기
비상교육	보드게임.
	지배계층의 뇌구조를 그리기, 인물 조사 보고서 쓰기.
지학사	광종의 개혁 정치를 뉴스로 진행하여 보자.
	그림으로 시대순을 배열하고, 줄거리를 엮어 발표해 보자.
천재교육	고려 태조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편지쓰기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의 입장에서 국회 의원 선거 연설문을 만들기
『역사(1)』	대단원 마무리 활동하기
교학사	제시한 인물 중 한 사람을 선정한 후 역사 재판을 꾸며보자
금성	역사 연표 만들기(정치, 대외관계, 문화)
두산동아	역할극 대본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 갖기
미래엔	역사 연표 만들기(주제를 정하여)
비상교육	역사 연표 만들기(세계사와 비교)
신사고	연극 대본 만들기, 제주도 답사해보기
지학사	활동 없음
천재교과서	활동 없음
천재교육	뉴스 기사문 만들기

『역사(1)』 9종 교과서 중 7종이 활동하기를 대단원 마무리 활동에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 중 3종이 역사 연표 만들기를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연표학습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주제별로 사건을 발췌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정리하는 마무리 활동으로 적합하다. 3종의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역사 연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제시하여 정치·대외교류·문화 비교하기, 주제를 정하여 연표 만들기, 동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함께 알아보기 등의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하여 활동을 유도하였다.

역사재판은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여 과오를 판단해보는 작업으로 인물이 활동

한 시대 상황과 인물의 업적 및 잘못을 조사하고 배심원이 되어 인물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연극 대본 만들기과 뉴스 대본 만들기의 경우 사건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설명해야 하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연극 대본의 경우 연기를 통해서 사건을 추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역사(상)』은 16개의 대단원 마무리가 있다 보니 『역사(1)』보다 다양한 형식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상)』의 대단원 마무리가 『역사(1)』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단원 마무리가 고려 단원에 한정되어 있고 『역사(상)』이 두 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역사(1)』보다 문제 수와 유형면에서 풍부하기 때문이다.

### Ⅲ.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중단원 서술 분석

#### 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궁예의 실정으로 사회가 혼란해 지자,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고려를 건국하고 연호를 천수<sup>40)</sup>라 하였으며, 건국 이듬해 송악으로 천도하였다. 호족을 포섭하고 발해 유민을 수용하여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였다.

<표 13> 『역사(1)』 IV-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집필지침

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태조의 정책을 통해서 고려의 통일이 지니는 의의를 파악한다.

고려의 건국 세력과 태조의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신라 말 이래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발해 유민의 포용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고려 초기에 국왕과 호족이 연합해서 정권을 유지하였고, 이들의 관계는 호혜적이었다는 호족 연합 정권설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태조 때 이미 국왕과 호족 사이에 군신관계가 성립되고 호족들의 지배 지역에 왕권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고려는 국호 제정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포함시킨다.

집필지침에서 교과서에 포함시킬 내용은 고려의 건국 세력, 태조의 정책, 발해유민 포용의 의미,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이다. 다만, 신라 말 이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 중에서 서술이 갈리는 부분과 모호한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40) 태조의 연호는 교학사, 금성, 지학사에서만 서술하고 있다.

1)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있어 발해 유민 포용이 갖는 의미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다. 그 정점은 발해 왕자 대광현에게 왕씨 성을 내리고 종실로 편입시킨 일이다. 이처럼 고려는 같은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인들을 수용함으로써 고구려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해 나갔다.

고려는 신라와 옛 고구려 및 백제 출신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포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학사 111쪽)

발해가 멸망한 이후 대광현을 비롯한 발해의 유민들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완전한 민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금성 123쪽)

고려는 옛 삼국 출신 세력과 발해인까지 포용하는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 (두산동아 94쪽)

고려는 옛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다양한 지방 세력을 지배층으로 포섭하는 한편, 발해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 이는 고려가 다양한 세력을 포용한 실질적 민족 통일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준다. (미래엔 108쪽)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 이로써 고려는 옛 삼국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비상교육 117쪽)

고려는 발해 유민을 적극 받아들였다.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인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민족의 재통일을 완성하였다. (신사고 109쪽)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실질적인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어 냈다. 이로써 고려는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학사 115쪽)

특히 후백제와 신라의 영토를 통합하고, 발해가 망한 후 그 유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다. (천재교과서 114쪽)

고려는 통일 과정에서 거란에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민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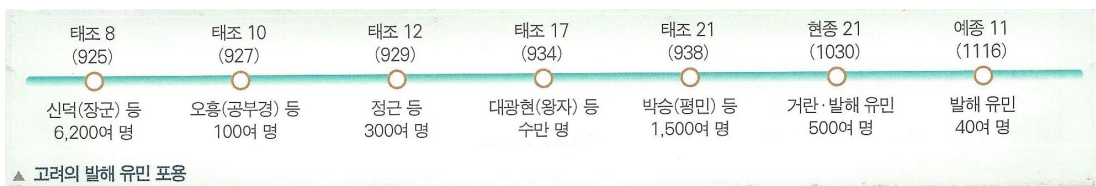
재통합을 이루었다. 이로써 고려는 옛 삼국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였다. (천재교육 115쪽)

인용문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고려의 발해 유민 포용 의미를 각 교과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발췌한 부분이다. 발해 유민 포용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민족의 통합과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예시 없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설명은 추상적이다.

모든 교과서에서 발해 유민 포용은 후삼국 통일 과정 이후에 서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발해 유민 포용 사례인 발해 왕자 대광현의 귀순은 934년(태조 17)에 발생한 사건으로 시기상 후삼국 통일보다 앞서 발생하였다. 또한 발해 유민의 귀순이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 초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발해 왕자 대광현의 귀순은 대표적인 사례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되 발해 유민 수용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지학사의 경우는 발해 유민의 포용을 연표로 나타내어 발해 유민 수용이 왕자 대광현의 일시적 흡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해 유민이 고려로 귀순했다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고 있다.

<표 14> 고려의 발해 유민 포용(지학사 115쪽)



교학사와 지학사의 읽기자료를 보게 되면 대광현이 고려로 귀순하자 왕건은 대광현에게 왕씨를 내려 친족이 되게 하고 토지를 주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설명한다.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려에 오니, ‘왕계’라는 이름을 주고 종실의 호적에 편입시켰다. 배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선조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교학사 109쪽)

태조 17년(934),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귀화하였다.

그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주어 왕실 족보에 등록시켰다. 그리고 그에게 배주를 다스리게 하면서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지학사 117쪽)

읽기자료의 배주는 지금의 황해남도 배천군을 가리키며 『高麗史』에서는 백주<sup>41)</sup>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왜 배주라고 교과서에서 적어두었는지 의문이다.

## 2) 고려 국호 제정에 있어 고구려 계승의식과 영토 회복의 노력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하여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이던 평양을 중시하여 서경이라 하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천강에서 영흥을 연결하는 선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교학사 109-110쪽)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121쪽)

태조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건국 직후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재건하였다. 지금의 황해도 지방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평양을 복구하고 평양 대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이어 곧 서경이라고 하고 수도인 개경에 버금가게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곳을 북진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았으며, 태조는 자주 서경에 직접 행차하여 국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태조 말년에는 서해안의 청천강과 동해안의 영흥을 잇는 선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금성 125쪽)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918). (94쪽)

태조는 건국 직후부터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평양)을 전진 기지로 삼아 북진 정책을 펼치는 등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산동아 95쪽)

왕위에 오른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고치고(918) (106쪽)

태조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후계 국가임을 자처하면서 건국 직후부터 북진 정책을 추구하였다. (미래엔 107쪽)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고치고(918) (116쪽)

41) 『高麗史』卷1, 「世家」2 태조 17년, 秋七月 渤海國世子大光顯率衆數萬來投 賜姓名王繼 附之宗籍. 特授元甫 守白州 以奉其祀. 賜僚佐爵 軍士田宅 有差.

태조는 건국 직후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과 자주 의식을 드러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국교를 끊었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평양)을 복진 정책을 전진 기지로 삼아 자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비상교육 118쪽)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지를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정하고(918), (108쪽)  
태조는 건국 초부터 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정비하여 서경으로 삼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북쪽 지방에 성을 쌓아 군대를 주둔시킨 다음 점차 영토를 넓혀 나갔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을 확보하였다. (신사고 109쪽)

왕위에 오른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114쪽)

태조는 건국 직후부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내세우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태조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망명해 오자,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북 지방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란의 남하를 막으려 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란의 남하를 막으려 하였다. 이 무렵 거란이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고자 사신을 보내왔다. 태조는 거란을 무도한 나라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후대의 왕들에게도 거란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성을 쌓고 이곳을 서경이라 부르며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적극적인 복진 정책의 추진 결과 태조 말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넓어졌다. (지학사 117쪽)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 라고 짓고(918) (113쪽)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정통 왕조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려’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옛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평양)을 중시하였으며,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복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천재교과서 114쪽)

왕위에 오른 왕건은 고구려를 이었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918) (114쪽)

태조는 고구려 계승을 내세우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 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 하여 중시하고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그 결과 태조 말에는 청천강에서 영흥 지방까지 영토가 확대되었다.

미래엔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미래엔은 국호의 제정에 있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후계국가임을 자부했다는 서술이 있지만 국호제정 부분에 있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태조의 북진 정책과 관련하여 서경을 중시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의 단교, 청천강과 영흥만을 잇는 영토를 확장하였다. 두산동아는 서경을 중시하고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를 삼았다. 미래엔은 북진정책을 하였다. 는 간단한 서술만을 하고 있다. 태조시기 청천강-영흥만까지의 확장이 좌우여백 지도에서는 발해유민의 흡수를 통해 늘어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 북진정책과 연관시키기에 설명이 부족하다. 금성의 경우는 서경을 중시한 과정에 대해 백성을 이주시키고 대도호부 지정, 서경으로 격상시켰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3) 후삼국 통일 과정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고려는 친신라 반후백제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고창전투 이후 후백제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후백제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왕건에 항복하였다. 이듬해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고, 고려는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정복하였다.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겼다(935). 한편, 후백제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다. 태조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긴 견훤을 맞아들이고 후백제를 정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교학사 109쪽)

신라의 경순왕은 후백제의 공격 등으로 나라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고려에 나라를 넘겨주었다(935). 그 뒤 고려는 후백제의 왕위 다툼을 틈타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두산동아 94쪽)

고려가 승세를 잡아 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935). 다

음 해에는 견훤과 그 아들(신검)의 권력 다툼으로 힘이 약화된 후백제의 군대를 일리천(경북 구미) 전투에서 크게 격파하고 후백제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미래엔 106쪽)

한편, 후백제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큰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고려에 귀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 경순왕은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스스로 고려에 항복하였다(935). 이후 고려는 후백제군을 격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비상교육 117쪽)

후백제의 공격에 시달리던 신라의 민심이 고려로 기울자,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신라 경순왕은 결국 고려에 항복하였다. 또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견훤이 귀순해 온 뒤, 고려는 후백제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신사고 109쪽)

교학사, 신사고의 서술은 견훤의 항복이 경순왕의 항복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산동아, 미래엔은 견훤의 항복을 본문에서 생략하고 있지만 좌우여백 지도에 견훤의 항복 연도가 표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비상교육처럼 신라에 위협이었던 견훤이 고려로 항복하자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 고려에 항복하는 경순왕을 서술하는 것이 역사의 순서도 맞고 후삼국 통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4) 광종의 왕권강화 정책

광종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이미 건국 초 태조 왕건이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종의 칭제건원은 왕권 강화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백성들을 양민으로 구제하였으며,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였다. 또한 관리들의 위계질서를 잡는 공복을 제정하였다.

정종의 뒤를 이은 광종은 호족의 힘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광종은 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시키는 노비안검법을 시

행하여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유교적 학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였다. 광종은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공신과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을 황제라 칭하였으며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하였다. (교학사 113쪽)

광종은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과거제를 시행하여 신진 인재들을 등용하였으며 공복을 재정하여 관리들의 서열과 기강을 확립하였다. 체제 정비에 반발하는 공신과 호족들도 숙청하였다. (금성 127쪽)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또한,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왕에 대한 충성심과 유교적 지식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였으며, 관리의 공복을 정하였다. 그리고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종은 이러한 개혁 정책에 불만을 가진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두산동아 95쪽)

광종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광종은 우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거느리고 있던 노비를 해방하였다. 또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학식과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였다. 광종은 이러한 정책에 반발한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좌우여백 주)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광덕·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미래엔 109쪽)

광종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였으며,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유교의 학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였다. 광종은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공신과 호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을 황제로 부르게 하고, 연호를 사용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비상교육 119쪽)

광종은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체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지식과 학문 능력에 따라 새로운 관리를 등용하였다. 관리들의 공복도 새롭게 제정하여 관복의 색깔에 따른 상하 질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왕권을 위협하던

호족들의 힘이 약화되어 왕권이 안정될 수 있었다.

(좌우여백 주) 광종은 고려를 황제의 나라로 인식하여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왕실의 용어도 황제국에 걸맞게 사용하였다. (신사고 110쪽)

(발문) 광종은 스스로 ‘짐’ 이라 부르고 백성에게 ‘폐하’ 라 부르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수고 개경을 황도라 부르게 하였으며, 공식 행사에서 천자만이 입는 황포를 입었다.

광종이 즉위하면서 고려의 왕권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또 과거제를 시행하여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고, 공복 색깔을 정하여 관리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공신과 호족을 과감하게 숙청하였다.

(지학사 118쪽)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본래 노비가 아니었지만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평민 신분으로 회복시켜,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또 과거제를 시행하여 유교적 소양과 실무 지식을 갖춘 인재를 뽑아 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로 삼았다. 이러한 견제정책에 호족들이 불만을 품자, 광종은 이들의 재산을 빼앗고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천재교과서 117쪽)

광종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광종은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시키는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유교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였다.

(천재교육 117쪽)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제외하고, 왕권강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칭제건원이 금성과 천재교과서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절반이 넘는 교과서에서 공복제정을 생략하고 있다. 공복의 제정은 관리들의 상하 위계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는 진화과정이며, 왕권이 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서술함이 바람직하다.

<표 15> 교과서별 광종의 왕권강화책 비교

	교학사	금성	두산 동아	미래 엔	비상 교육	신사 고	지학 사	천재 교과 서	천재 교육
칭제	O	X	O	O	O	O	O	X	O
연호	O	X	O	O	O	O	X	X	O
광덕 준풍	X	X	X	O	O	O	X	X	X
공복	X	O	O	X	X	O	O	X	X

### 5) 왕사·국사제도

고려에 왕사·국사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국가의 최고 위치인 왕 위에 왕의 스승으로 승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왕이 불교를 존중하고 정치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사는 신라 신문왕 때 경흥을 국사로 임명했던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처음 왕사를 임명하였고,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한 이후 王師·國師가 제도화되었다.<sup>42)</sup>

광종 때에는 승과 제도를 마련하고 유명한 승려에게 국사나 왕사의 칭호를 주어 왕실의 고문 역할을 맡게 하였다. (교학사 137쪽)

태조는 불교를 숭상하여 … 왕사와 국사 제도를 시행하여 승려들을 우대하였다. 광종은 과거 시험에 승과를 설치하고 합격한 승려에게 공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금성 149쪽)

광종은 승과를 실시하였으며, 국사와 왕사 제도를 정비하였다. (두산동아 116쪽)

광종 때에는 과거 시험에 승과 제도를 설치하고, 국사와 왕사 제도를 두어 나라와 임금의 스승으로 삼았다. (미래엔 130쪽)

고려는 국사와 왕사 제도를 두었으며 … (비상교육 143쪽)

42) 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研究』, 一潮閣, 1994, 23-24쪽; 朴胤珍,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京人文化社, 2006, 15쪽. 왕사와 국사의 역할에 대해서 허흥식은 구분을 두지 않는 반면 박윤진은 왕사는 왕의 스승으로 승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승려로, 국사는 왕사에서 물러나는 승려가 명예직으로 받는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다(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研究』, 一潮閣, 1994, 24-26쪽; 朴胤珍,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京人文化社, 2006, 43-45쪽).



광종은 승과 제도를 실시하였고, 국사·왕사 제도를 마련하여 승려가 국가와 왕실의 고문 역할을 맡게 하였다. (신사고 132쪽)

고려 태조 이래..., 덕이 높은 승려를 왕의 스승으로 모셨고,...(천재교과서 142쪽)

지학사와 천재교육은 왕사·국사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교학사, 두산동아, 미래엔, 신사고에서는 틀린 서술은 아니지만 왕사가 광종부터 시작된 직책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국사·왕사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게 서술하고 천재교과서에서는 왕사 제도만을 설명하고 있다. 금성은 태조 왕건 때부터 왕사·국사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올바른 서술은 태조가 왕사를 임명하고 광종대에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승계를 만들어 왕사와 국사를 제도화시켰다고 서술해야 할 것이다.

## 2. 통일 체제 정비와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는 당의 3성 6부 관제를 실정에 맞게 개편하여 2성 6부제를 시행하였으며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하였다. 성종대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현종대에 5도 양계를 두어 중앙과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고려는 외침이 많았던 시대로 고려 초기에는 거란·여진과의 전쟁이 있었다. 고려는 주변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였으며, 아라비아 상인까지 찾아와 세계에 고려를 알리게 되었다.

<표 16> 『역사(1)』 IV-② 통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 집필지침

② 고려 전기 정치 체제의 정비를 통해서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이해하고, 대외 관계를 전쟁과 교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고려 전기에 정비된 여러 가지 정치 체제의 운영을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려가 귀족 중심의 사회였음을 설명한다. 고려 전기에 외세의 침략을 막고 국가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였음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성종 대에 확립된 중앙 집권 체제는 국왕과 호족 세력이 갈등하면서 타협을 이룬 소산물이었음에 유의하여 서술한다. 고려 귀족 사회가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 발전한 사회였음에 유의하여 서술한다. 고려의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에 대한 논쟁을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 다만, 고려 시대에는 혈연이 중시되면서도 과거제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 유의한다. 고려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과거를 통해 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확대된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서술한다.

집필지침에서는 전기에 정비된 정치 제도와 귀족 중심사회의 특징, 외세의 침략을 막고, 주변국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 하였다는 것으로 핵심을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중앙 정치 체제 정비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는 성종대에 이르러 정비되는데 중국의 3성 6부제를 모방하여 고려 실정에 맞게 수정한 2성 6부제를 실시하였다.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서 중서문하성으로 상서성 예하에 6부를 두어 운영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였는데 고려의 독자적 기구이자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보여주는 기구이다.

(좌우여백주) 당의 3성 6부제를 2성 6부로 고쳐 운영하였다.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한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

(교학사 114쪽)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였다.

(금성 127쪽)

고려는 당과 송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여 고려의 실정 맞게 2성 6부제로 운영하였다.

(읽기자료) 당에서는 3성 6부제를 송에서는 중추원과 삼사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이나 송과는 달리 귀족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두었다. 이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로,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두산동아 96쪽)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의 정치가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나타내

준다. (미래엔 110쪽)

고려의 중앙 정치는 당과 송의 제도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 2성 6부로 운영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로, ...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비상교육 120쪽)

고려의 독자적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는 ... (좌우여백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회의 기구는 고려 중앙 정치의 귀족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신사고 111쪽)

(좌우여백주) 성종 때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이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쳐 운영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귀족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지학사 119쪽)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는 당의 제도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2성 6부로 고쳐서 운영되었다. 고려의 독자적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었다. (천재교과서 118쪽)

고려는 중앙 정치 기구로 당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였지만, 고려 실정에 맞추어 2성 6부제로 운영하였다. (천재교육 118쪽)

중앙 정치 체제의 핵심 요소는 첫째, 중국의 제도를 차용하였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는 것. 둘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다는 것. 셋째, 고위 관직자들의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고려 정치의 귀족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게 되면 두산동아와 비상교육에서만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서술하였다. 특히 두산동아는 읽기자료를 추가하여 다른 교과서들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외 교과서에서는 한 두 가지만을 서술하여 보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지방 행정 체제의 정비

지방 행정 체제는 성종대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현종대에 5도 양계, 경기를 만들었다. 모든 군현에 관리를 파견하지 못하여 속현이 발생하였고 이곳은 향리들이 담당하였다.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은 성종 때 12목을 설치한 이후 차차 정비되어 현종 때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정비하였다. (교학사 114쪽)

지방 행정 조직은 성종 때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된 이후 차츰 정비되어 현종 때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 전국은 크게 5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었다. (금성 128쪽)

고려의 지방 제도는 성종 때 정비되기 시작하여 지방 행정 중심지에 12목이 설치되었다. 그 뒤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두산동아 96쪽)

고려의 지방 제도는 성종 때 12목이 설치된 이후 현종 때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누고,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미래엔 111쪽)

성종 때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후 고려는 전국을 크게 5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어 정비하였다. (비상교육 120쪽)

성종 때 최승로 등의 건의를 계기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이후 점차 5도 양계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 제도가 갖추어졌다. (신사고 112쪽)

성종 때 지방 중심지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 행정 조직을 갖추어 갔다. 현종 때에는 경기와 5도 양계의 틀이 정비되었다. (지학사 119쪽)

성종 때에는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이후 고려는 지방을 5도와 양계, 경기 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렸고, 5개의 도에는 안찰사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천재교과서 118쪽)

성종 때 지방의 주요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부터 지방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고려는 북쪽 국경 지대에는 양계를 두고, 양계 이남에는 5도를 설치하였다. (천재교육 118쪽)

인용문은 성종 대 12목을 설치하고 현종 때 5도, 양계, 경기를 설치하였다는 기사를 서술한 내용이다. 모든 교과서에서 성종의 12목 설치를 언급하였지만 5도 양계 경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현종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는 교과서가 있는 반면 이후라고 성종 후대의 임금이 설치했다는 설명을 볼 수 있다. 현종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남는다. 고려의 행정구역에 있어서 두산동아, 신하고, 지학사, 천재교육은 경기도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었다.

### 3) 귀족 중심의 사회

신라 시대보다는 약화되었지만, 고려 시대도 신분의 세습이 가능하였다. 왕족·공신·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손은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5품 이상의 관리들은 공음전을 받아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는데, 이 땅은 귀족들의 경제기반이 되었다.

왕족을 비롯한 5품 이상의 문벌 귀족은 음서의 특혜를 누리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음서는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다. 5품 이상의 관리·공신, 왕실의 자손들이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교학사 115쪽)

(좌우여백 주) 음서는 왕족의 후손이나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의 자손,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능력보다는 혈연이 우선시되는 제도였으므로, 고위 관리의 자손들이 지위를 세습하는 데 중요한 제도였다. 따라서 음서는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성격을 보여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9쪽)

공음전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다른 전시과 토지와 달리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었다. (금성 130쪽)

음서는 왕족과 공신의 자손, 5품 이상 관료의 자손 등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다. 음서는 귀족의 신분 세습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공음전(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된 토지로 세습이 가능하였다)과 함께 고려 사회의 귀족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97쪽)

왕족이나 공신의 자손, 고위 관료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료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를 음서라고 하는데 귀족들은 음서 혜택을 받아 귀족의 지위를 세

습할 수 있었다. 음서 제도는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탐구) 5품 이상의 관리는 전시과 외에 공음전을 받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미래엔 112쪽)

음서제는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왕족과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제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제도였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는 공음전을 주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였다. 왕족을 포함한 귀족들은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해 대대로 벼슬을 하였으며, 공음전을 받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비상교육 121쪽)

공신, 왕족이나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는 음서의 특혜가 주어졌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음서가 폭넓게 시행되면서 고위 관리들은 관료의 지위를 세습할 수 있었다.

5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자식에게까지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이 지급되었다. 공음전은 음서제도와 더불어 귀족 가문들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었다.

(신사고 113쪽)

5품 이상의 관리는 전시과 외에도 공음전을 받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음서는 왕족이나 공신, 그리고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음서로 관리가 되면 일찍부터 벼슬을 시작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기 쉬웠다. (지학사 120쪽)

공이 있는 신하와 5품 이상 관료의 자손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 5품 이상의 관료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공음전을 받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따라서 공음전은 음서와 함께 고려 시대 귀족들의 정치적·경제적 특권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다. (천재교과서 119쪽)

음서는 왕족의 후손,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과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였다. 귀족들은 음서를 통해 일찍부터 벼슬을 시작할 수 있어 출세에 유리하였다. (천재교육 119쪽)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사와 문화사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공음전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공음전은 귀족 사회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sup>43)</sup> 교학사와 천재교육

을 제외한 교과서에서는 음서제와 공음전을 귀족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라 서술하고 있다. 귀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음서제와 공음전을 함께 서술해야할 필요가 있다.

#### 4) 개방적 사회와 과거제

고려는 음서제도와 공음전이라는 귀족적 요소도 있었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과거제가 존재하였다. 비록 과거를 볼 수 있는 신분이 제한되고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전 사회에 비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개방적 사회라는 것을 부각시켜 설명해야 한다.

향리와 같은 지방 세력도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하여 귀족이 될 수 있었고, 중앙 귀족이 향리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고려는 골품제로 엄격했던 신라 사회보다 개방적인 사회를 이루었다. (교학사 115쪽)

지방의 향리도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될 수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명문 가문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다. (금성 129쪽)

고려에서는 혈연이 중시되었지만, 과거 등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방법도 있었다. (두산동아 97쪽)

(읽기자료) 향리는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 관료로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래엔 111쪽)

고려는 과거제를 통해 능력을 바탕으로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비상교육 121쪽)

과거 응시는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였지만, 귀족이나 향리 자제가 아닌 일반 농민이 과거에 합격하기는 어려웠다. (신사고 123쪽)

---

43)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중 교과서의 개발 방향에서 이행 시기와 같이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넣어 교과서를 개발한다 라 명시되어있다(국사편찬위원회 안내자료,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1.9.1).

고려에서는 지방의 향리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로 진출하여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 사회는 엄격한 골품제가 운영되었던 신라 사회보다 개방적이었다. (지학사 120쪽)

고려는 통일 신라에 비해 혈연이 중시되면서도 과거제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관리가 될 기회가 더 열려 있는 사회였다. (천재교과서 119쪽)

(읽기자료) 과거는 개인의 능력을 시험 보아 관리를 뽑는 제도이다. 이는 고려 사회가 골품제로 운영되었던 신라 사회보다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혈연이 중시되면서도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천재교육 119쪽)

고려는 통일 신라에 비해 혈연이 중시되면서도 과거제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관리가 될 기회가 더 열려 있는 사회였다. (천재교과서 119쪽)

인용문을 정리해 보자면, 고려는 통일 신라 시기와 비교하여 개인의 능력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고 문벌귀족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개방된 사회는 아니었지만 이전 사회보다 관직진출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사고에서는 과거 제도를 통해 고려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개방적인 사회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보다는 과거응시의 현실적 한계를 설명함으로써 개방성이라는 논점을 피해서 서술하였다.

무관을 뽑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 무예가 능하고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무관으로 임명하였다. (교학사 115쪽)

무관을 뽑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며, 무예가 뛰어나거나 신체 조건이 우수한 사람을 따로 뽑아 무관으로 임명하였다. (금성 129쪽)

무과는 따로 시행하지 않고, 무예나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였다. (두산동아 97쪽)

설명 없음 (미래엔)



무과는 시행하지 않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따로 가려 뽑았다. (비상교육 121쪽)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다. (신사고 112쪽)

무과가 없고, 승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학사 120쪽)

무관을 뽑기 위한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천재교과서 119쪽)

무관을 뽑는 시험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예와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무관으로 임명하였다. (천재교육 119쪽)

광종이 과거제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무관을 뽑는 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시적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의 무과는 1109년(예종 4)부터 1133년(인종 11)까지 24년간 실시되었다가 문관들의 반발로 없어졌다.<sup>44)</sup> 따라서 무과시행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교학사, 금성, 천재교육처럼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예와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을 뽑았다고 서술하거나 무과는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폐지되었다. 라고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5) 거란과의 전쟁

고려 초 고려·송·거란은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거란은 송과의 전쟁을 위해 후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거란은 고려를 공격해 왔지만, 대외적인 명분은 거란이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고 고려는 신라의 후예이기 때문에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영토를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고려 조정에서는 대동강 이북을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서회는 거란의 목적을 알고 소손녕과 담판을 지어 송과의 단교를 약속하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송과의 단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란은 강동 6주의 반환과 강조의 정변을 이유로 2차 침입을 시도 했다. 개경까지 함락되었지만, 양규의 활약으로 물러났다.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거란의 공격을 막아냈다.

4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3, 탐구당, 2002, 384-385쪽; 『高麗史』卷73 「選舉志」1 科目 (睿宗)十五年五月 韓安仁 知貢舉, 金富但 同知貢舉, 取進士, 覆試, 賜李之氏等三十八人及第. 是舉, 并試策武學生.

<표 17> 교과서별 거란의 침략 비교

	교학사	금성	두산 동아	미래 엔	비상 교육	신사 고	지학 사	천재 교과 서	천재 교육
1차	서희, 강동 6주								
2차	송 친선	송 친선	송 친선	송 친선	-	송 친선	송 친선	-	-
	강조 정변	강조 정변	강조 정변	-	강조 정변	강조 정변	-		강조 정변
	-	개경 합락	개경 합락	개경 합락	개경 합락	-	개경 합락		개경 합락
	양규	양규	양규	양규	양규	양규	양규		양규
3차	강감찬 귀주대첩								

거란의 2차 침입은 송과의 단교를 약속하고 강동 6주를 획득했던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강동 6주를 돌려받고 강조의 정변을 바로 잡겠다는 대외 명분으로 공격해온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거란의 2차 침입의 원인이 된 송과의 친선 유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에서는 강조의 정변만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란 침입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하기 힘들다. 천재교과서의 경우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 3차 침입의 경우 귀주대첩으로 물리치고 강감찬의 건의로 천리장성과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는 서술이 있는데 미래엔, 천재교과서, 천재교육에는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는 서술이 없었다.

#### 6) 대외 교류

집필기준에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였다는 문장이 있는데, 교과서만 본다면 고려는 송의 문화만을 수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 외의 것들은 단순히 고려와 외국과의 교역품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수용과는 거리가 있다.

송의 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송보다 더욱 뛰어난 고려청자를 제작하였다.  
(교학사 118쪽)

고려는 사신, 학자, 승려 등을 보내 송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교역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금성 133쪽)

고려는 특히 송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겨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내 선진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다. (두산동아 99쪽)

고려는 송에 사신, 학자, 승려들을 보내 발달된 송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송은 고려를 통해 주변의 이민족을 견제하려 하였다. (미래엔 115쪽)

고려는 사신, 학자, 승려를 보내 송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제적·문화적 실리를 추구하였다. 반면, 송은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려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고려와 교류하였다. (비상교육 124쪽)

고려는 송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 반면, 송은 고려와 적극 교류함으로써 거란, 여진 등 북방 민족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신사고 115쪽)

고려는 사신, 학자, 승려 등을 송에 보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고려가 초조대장경을 간행하고 청자를 발전시킨 데에는 송 문화의 영향이 컸다. (지학사 123쪽)

고려는 송에 사신, 승려 등을 보내 발달된 문물을 적극 받아들였다. (천재교과서 122쪽)

고려는 송에 사신과 학자, 승려 등을 보내어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였다. 송은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주변 민족을 견제하려 하였으며, 송의 상인들도 고려에 왕래하며 교역하였다. (천재교육 123쪽)

교과서에 나온 교역품만 본다면 요(거란)와 금(여진)은 북방의 미개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신사고의 경우 고려는 무역을 실시하여 거란과 여진이 생계유지를 위해 침입해 오는 것을 미리 막고자 하였다(116쪽). 라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무역거래도 있었지만, 거란은 고려보다 먼저 대장경을 제작하고 송나라에서 서책을 얻지 못하자 고려에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다. 거란과의 교역은 공무역이 주를 이루었는데 고려가 거란에 보낸 물품에는 사치품(비단방석, 의자 등반이, 악세사리)과 銅器, 직조품 등이 있었으며, 거란산 綾羅가 고려에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45)</sup>

<표 18> 교과서에 나타난 고려의 대외 교역품

고려	송	요(거란)	여진	일본	아라비아	
수출품	교학사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떡, 종이	농기구, 곡식, 문방구	농기구, 곡식	곡식, 인삼, 서적	
	금성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떡	농기구, 식량	농기구, 식량	식량, 인삼, 서적	
	두산동아	인삼, 도자기, 나전칠기, 떡	곡식, 문방구, 농기구	농기구, 곡식, 포목	곡식, 인삼, 서적	
	미래엔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떡	농기구, 곡식, 문방구	농기구, 곡식, 포목	곡식, 인삼, 서적	
	비상교육	인삼, 금, 은, 나전칠기, 종이, 떡	농기구, 곡식, 문방구	농기구, 곡식	곡식, 인삼, 서적	
	신사고	금은세공품, 떡, 종이, 인삼, 화문석, 나전칠기	곡식, 구리, 철	곡식, 문방구, 농기구	서적, 인삼, 곡식	
	지학사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떡	농기구, 곡식, 문방구	농기구, 곡식, 포목	곡식, 인삼, 서적	
	천재교과서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떡	농기구, 곡식, 문방구	농기구, 곡식, 포목	곡식, 인삼, 서적	
	천재교육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떡	농기구, 곡식, 문방구	농기구, 곡식, 포목	곡식, 인삼, 서적	금, 은, 비단, 토산품
수입품	교학사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은, 모피, 말	말, 화살	황, 수은	수은, 향료, 산호
	금	서적, 비단,	은, 모피,	은, 모피,	수은, 유향	

4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5, 탐구당, 2002, 340-343쪽.

성	약재, 악기	말	말		
두산동아	비단, 문방구, 약재, 서적	은, 모피, 말	은, 모피, 말	수은, 황	
미래엔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은, 모피, 말	은, 모피, 말	황, 수은	수은, 향료, 산호
비상교육	서적, 약재, 비단, 악기	은, 모피, 말	말, 화살	황, 수은	수은, 향료, 산호
신사고	자기, 비단, 서적, 약재, 문방구, 화폐, 차	은, 모피, 말	은, 모피, 말	황, 수은, 진주	향료, 수은, 의약품
지학사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은, 모피, 말	은, 모피, 말	황, 수은	수은, 향료, 산호
천재교과서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은, 모피, 말	은, 모피, 말	황, 수은,	수은, 향료, 산호
천재교육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은, 모피, 말	은, 모피, 말	황, 수은	수은, 향신료, 산호

여진의 경우 고려와 금의 관계처럼 학술·사상 등의 문화 교류를 찾기 힘든 지극히 정치적·의례적인 관계이지만 양국의 경제교류가 미미했다고는 할 수 없다. 관무역의 경우 고려는 금에 御衣·衣帶·銀器·茶 등을 보냈으며, 내란진압에 도움을 준 금의 장수에게 銀器·가는 모시·가는 비단·굵은 베와 쌀 등을 사례한 바 이 품목들도 평소 고려에서 금에 보낸 조공무역품의 일부라고 보여진다. 또한 이미 북송 때부터 그 명성이 높았던 고려의 문방용품도 금인들에게 인기 있는 수입품의 하나였다. 고려는 금으로부터 金·絲·絹·羊을 회사품으로 받았다고 한다.<sup>46)</sup>

위에 제시한 예시가 고려의 국력이 거란과 여진(금)보다 약했을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 교역품을 나열한 것이지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거란·여진과

4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5, 탐구당, 2002, 360-367쪽.

의 무역품을 농기구, 문방구, 곡식, 모피, 말에 한정시켜서 보여주는 것은 거란·여진과의 관계를 비약해서 보여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 교류관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의 봉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진압된 뒤 무신 차별에 불만을 품은 정중부와 이의방은 보현원 행차에서 정변을 일으킨다. 무신들은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유폐시킨다. 이후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다. 잦은 권력 교체로 혼란하던 때 최충헌이 권력을 잡아 4대 60년간 권력자의 자리를 지켰다.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만들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 집행하였다. 최우는 집에 정방을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고 문신자문기구인 서방을 두었으며, 사병으로 조직된 도방을 확대하고 삼별초를 만들어 군사적 기반을 삼았다.

<표 19> 『역사(1)』 IV-③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의 봉기 집필지침

③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 봉기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고려의 지배 체제가 동요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 정변 이후에 일어난 농민·천민의 봉기를 지배 체제의 동요와 관련지어 서술한다. 무신 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귀족 사회가 동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집필지침에서는 무신정변으로 인한 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들의 압정으로 인한 농민·천민의 봉기, 사대부 계층의 형성에 관해 서술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 1)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 이후 문벌귀족의 모순을 드러난 상황에서 묘청은 서경길지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천도하고 칭제건원과 금나라를 정벌을 주장한다. 인종은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천도를 시도하였으나 김부식을 대표로 하는 개경 문벌귀족들의 반대로 포기한다. 이에 묘청은 국명을 대위 연호를 천개로 서경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지만 김부식의 토벌군에 의해 1년 만에 진압된다.

요청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1135). 그러나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진압되어 서경 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교학사 121쪽)

요청의 난은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한 관군에 의해 1년여 만에 진압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금성 135쪽)

요청의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1년여 만에 진압되었다. (두산동아 103쪽)

결국 서경 천도가 어렵게 되자 요청 등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1135). (미래엔 118쪽)<sup>47)</sup>

요청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1135),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을 서경 세력을 제거하고 반란을 진압하였다. (비상교육 127쪽)

그러나 김부식 등 개경 문벌 귀족들의 반발로 서경 천도가 불가능해지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로 정하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1135). 이 반란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1년 만에 진압되었고, 서경 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신사고 119쪽)

하지만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어려워지자 요청 등 서경 세력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라 부르며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켰다(1135).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의해 1년 만에 진압되었다. (지학사 125쪽)

이자겸의 난과 요청의 난은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가 분열되고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천재교과서 125쪽)

요청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면서 서경 주변 사람들을 난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요청의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의해 1년여 만에 진압되었다. (천재교육 125쪽)

『역사(상)』 교과서와 비교를 해 본다면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본 교과

47) 본문 하단 탐구 활동 제목이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으로 보아 저자는 요청의 난을 서경 천도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는 교학사(신), 교학사(양), 대교,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등 5개 출판사였으며, 묘청의 난이라고 서술한 교과서는 지학사, 천재교육이었다. 『역사(1)』에서는 교학사, 미래엔, 신사고, 지학사, 천재교과서에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서술하였으며, 금성,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에서는 묘청의 난이라고 서술하였다. 정리해 본다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0>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교과서	성격	출판사
『역사(상)』	서경 천도 운동	교학사(신), 교학사(양), 대교,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묘청의 난	지학사, 천재교육
『역사(1)』	서경 천도 운동	교학사, 미래엔, 신사고, 지학사, 천재교과서
	묘청의 난	금성,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

묘청의 난이 바른 표현인지 서경 천도 운동이 바른 표현인지에 관해서는 연구와 저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집필지침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한 『한국사』에서는 묘청의 난<sup>48)</sup>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서경 천도 운동 보다는 묘청의 난으로 표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 무신 정변

의종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후 무너진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문벌귀족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의종은 사치와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무신들이 대우에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키게 된다.

고려 전기에 높은 관직과 넓은 토지를 가진 문벌 귀족은 대부분 문신이었고 무신들은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다. 의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러한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 (교학사 122쪽)

4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2, 탐구당, 2002, 258쪽.



문신이 정치를 주도하던 고려 사회에서 문신들은 2품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 없었으며, 군대 최고 지휘관도 문신이 맡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의종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고, 문신들이 무신을 업신여기는 풍조는 더 심해졌다. (금성 136쪽)

문신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던 무신의 불만은 커져 갔다. 특히 고려는 군대의 최고 지휘관까지 문신이 맡았으며, 무신은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다. 하층 군인도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각종 잡역에 시달려 불만이 많았다. (두산동아 104쪽)

고려에서 무신은 정치·경제적으로 문신보다 지위가 낮았다. 과거 시험에서 무신을 등용하는 무과가 없었던 것은 무신의 지위를 낮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였다. 또한, 마땅히 무신이 맡아야 할 군사 지휘권마저 문신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신의 불만은 날로 높아졌다. 또 하층 군인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온갖 잡역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심해졌다. (미래엔 119쪽)

고려 전기는 문신이 정치를 주도하는 귀족 사회였다. 무신은 문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고, 과거에 무과를 설치하지 않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다. ... 문벌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자 무신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또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장교와 각종 노역에 시달리던 병사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비상교육 128쪽)

문신들은 정치를 주도하면서 군사 지휘권까지 독점하였고, 젊은 문신들이 무신을 모욕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무신의 지휘를 받는 하급 군인들도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잡역에 자주 동원되었다. 이에 무신과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졌다. (신사고 120쪽)

고려 전기는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문신 관료에 비해 무신은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 과거 시험에는 무신을 선발하는 무과가 없었고, 군대의 최고 지휘권은 문신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하층 군인도 군 복무의 대가로 받을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무신의 불만은 점점 쌓여 갔다. (지학사 126쪽)

고려는 문신이 무신보다 우대받던 사회였다. 왕권이 약해지고 문벌 귀족 사회가 내부로부터 분열을 겪으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 (천재교과서 126쪽)

고려의 무신은 오랫동안 무신에 비해 차별을 받아 불만이 커져 갔다. 또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각종 공사에 동원된 하급 군인들의 불만도 컸다.

(천재교육 126쪽)

각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무신들이 차별을 받고 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단순히 문신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서술하는 교과서가 있는 반면 지휘권이나 무과의 부재, 하급 군인들이 군인전을 받지 못하고 잡역에 동원됐다는 사항까지 나타내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

무신정변의 결정적 계기가 된 짧은 문신 한뢰가 대장군 이소응에게 무례를 범한 사건을 금성과 천재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출판사에서 설명하고 있다. 비록 같은 품계라도 무신이 문신에게 인사를 해야 했던 상황이지만, 품계가 낮은 문신이 종3품 대장군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신들이 문신에 비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성과 천재교과서에서도 이 사건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쉽게 무신정변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3) 사대부 계층의 형성

무신정권의 대표적인 기구들로 장군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 최충헌이 만든 최고의 권력기구 교정도감, 최씨 집안의 사병 조직인 도방과 삼별초, 최우가 만든 인사 행정 담당기구 정방과 문신 자문기구인 서방이 있었다.

정방은 최우가 사저에 설치하였던 최씨 정권의 사적 인사행정 기관이었다. 그러나 정방에는 정식관직에 준하는 인원으로 채워져 있었고, 또 직접 정안에 따라 전주를 관장하여 국왕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적기구의 일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방이 완전히 국가 기관으로 된 것은 최씨 정권이 몰락한 이후부터였다.<sup>49)</sup> 서방은 최씨 정권의 숙위기관으로 1227년(고종 14) 최우에 의해 설치되어 무신정권이 붕괴된 1270년(원종 11)까지 지속되었다. 최우의 서방 설치의 문사를 포섭하려는 뜻도 있겠지만, 그들이 옛 일에 밝고 식견이 높아 정치에 있어서

4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8, 탐구당, 2002, 167쪽.

고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50)</sup>

무신정권은 자기의 절대적 지배하에서 文·吏들을 출신여하를 불문하고 오직 그 능력을 기준으로 서용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고려 전기의 文辭 중심의 문신보다는 행정실무에도 밝은 새로운 관료가 요구되었다. 흔히 말하는 能文能吏, 즉 文에도 못하고 吏에도 능한 관리가 요구되었던 것이다.<sup>51)</sup> 정방과 서방에 참여 했던 인물들은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발된 문인들로 무신정권이 끝난 뒤에는 고려 후기의 새로운 관리 계층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들을 사대부라 부르는 것이다.

<표 21> 교과서별 무신 기구 비교

	교학사	금성	두산 동아	미래엔	비상 교육	신사고	지학사	천재 교과서	천재 교육
교정도감	○	○	○	○	○	○	○	○	○
도 방	○	○	○	○	○	○	○	○	○
정 방	○	○	○	○	○	○	○	○	○
서 방	○	-	○	-	○	-	○	-	-
삼 별 초	○	○	○	○	○	○	○	○	○

최충헌의 아들 최우는 독자적인 인사 행정 기구인 정방을 설치하는 동시에 문인들로 구성된 자문 기구로 서방을 설치하였다. 최씨 무신정권은 과거 시험에서 문인들을 뽑아 정책 자문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이로써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22쪽)

(읽기자료) 최씨 정권은 능력 있는 문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과거 시험에서 문장 실력이 좋은 문인들을 뽑아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교학사 124쪽)

문신을 등용하여 정책을 자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 행정 능력과 학문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문인 관료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의 인사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금성 137쪽)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문신으로 구성된 서방을 설치하여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5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8, 탐구당, 2002, 175쪽.

5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 탐구당, 2002, 96쪽.

그 뒤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두산동아 105쪽)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들의 인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신이 등용됨으로써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미래엔 120쪽)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고, 학문과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인을 발탁하여 정책을 자문하고 관리로 임용하였다. (비상교육 129쪽)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이규보 등 행정 실무에 밝은 문신들을 적극 등용하였다. 이는 사대부 계층이 새로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사고 121쪽)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의 인사를 좌우하였고, 서방을 통해 문신을 정치에 등용하였다. 그리하여 행정 실무에 밝은 문인 관료들이 사대부 계층을 형성해 나갔다. (지학사 126쪽)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조정의 모든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고 … 나아가 최씨 정권은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학문적인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천재교과서 126쪽)

이규보와 같은 문신들을 등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자문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천재교육 127쪽)

정방이 최씨 정권의 인사행정기구였다면 서방은 최씨 정권의 사적 자문기관 역할을 한 최씨 정권의 지력 숙위기관이었다.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그들 가운데서 能士를 뽑아들여 必閣赤라 하여 전정을 맡게 하였고, 이후 2년 뒤에 문사로 구성된 서방을 설치하였다. 먼저 정방을 설치하여 문객 문사들 가운데 능사를 뽑아 등용하고 그 후속책으로 서방을 설치하여 나머지 능사를 등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sup>52)</sup> 무신 집권기 文士들의 보호 울타리역할을 하였고 사대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방과 비교하여 정방과 서방이 모두 최씨 정권 아래에서 구

5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8, 탐구당, 2002, 176쪽. 김한규는 도방과 서방을 같은 최씨 정권의 숙위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金翰奎, 「高麗崔氏政權의 晉陽府」, 『東亞 研究』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167쪽).

성원 기구이긴 하지만, 정방은 최씨 정권의 인사 기관으로 근무자들의 품계가 있었다. 그러나 서방은 문신이나 과거 급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씨 정권의 자문기구로써 독자적 역할을 했다. 정방은 존폐가 반복되어 공민왕 때에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서방의 존재는 무신집권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다. 서방은 정방과는 역할이 다른 문인 조직체로써 사대부 형성에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교학사에서는 본문과 읽기자료 중복해서 무신집권기 문인들의 진출이 사대부 계층을 이루는 시초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금성과 천재교과서에서는 최씨 정권 아래서 행정적 업무를 맡아 새로운 문인이 형성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대부를 형성하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4.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자주화 노력

고려는 원과 강화를 맺으며 화주(쌍성총관부), 서경(동녕부), 제주(탐라총관부)를 빼앗겼지만 충렬왕 때에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를 돌려받고, 화주 지방은 공민왕 때에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원 황실의 부마국이 됨으로써 왕실 용어 및 관제가 격하되었으며, 금, 은, 비단, 인삼, 매, 공녀 등을 원나라에 바쳐야 했다. 주요 정치 세력은 이 시기까지 남은 문벌귀족과 무신정권시기 신흥 세력 그리고 친원세력(역관, 왕자 호위단, 원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권문세족을 이루었다. 권문세족은 무신들이 차지한 농장을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확대하였다. 충선왕과 충목왕의 개혁은 번번이 실패하였고, 공민왕 때에 이르러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관제를 복구하며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 몽골의 풍습을 차단하였다. 신돈을 등용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를 회수하고 노비가 된 백성들을 양민으로 해방하였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과 신돈의 숙청, 공민왕의 죽음으로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 사회를 지탱하는 신흥 무인세력이 등장하였다. 공민왕의 유교 진흥으로 등장한 신진 사대부들은 신흥 무인세력과 결탁하여 권문세족 척결에 앞장섰다. 원의 뒤를 이어 등장한 명은 철령위 통보로 고려를 자극하였고, 최영이 요동정벌을 주장하여 전쟁을 시작하였지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숙청하고 우왕을 폐함으로써 이성계와 급진파 사대부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 22> 『역사(1)』 IV-④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 집필지침

**④ 대몽 항쟁의 과정, 원 간섭기 권문세족의 성장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을 이해하고, 고려 사회의 개혁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였음을 파악한다.**

대몽 항쟁으로 고려 말의 개혁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 몽골의 침략을 맞이하여 고려가 장기간 항쟁을 벌일 수 있었던 대내외적인 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고, 고려의 피해에 대해 서술한다. 원의 정치적 간섭으로 관제가 격하되고 경제적 피해도 입었지만, 고려가 국가를 유지하였던 점에 유념하도록 한다. 원의 세력이 약화된 공민왕대에 추진된 반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신진 사대부가 고려 말에 개혁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

고려 후기 지배층을 권문 세족과 신진 사대부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조선을 건국한 주체 세력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운 두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집필지침에는 고려가 장기간 항쟁을 할 수 있던 요인과 피해, 원간섭기 고려의 국가 유지과정, 공민왕의 반원자주노력과 신진사대부의 개혁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1) 고려가 장기간 항쟁을 벌일 수 있었던 대내외적 요인

칭기즈칸의 몽골 통일(1206) 이후 고려와 몽골의 첫 조우는 거란이 세운 동진국을 연합하여 공격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였으나 거란을 물리친 대가로 몽골이 무리한 공물 요구하고 고려에서 돌아가는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으로 인해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몽골의 1차 침입은 살리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귀주에서 박서와 김경손이 잘 막아내었지만, 귀주를 피해서 개경을 포위하고 충주지방까지 전진하였다. 최우는 긴급히 몽골과 강화를 하였고, 몽골군은 다루가치를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계속되는 무리한 공물 요구로 최우는 다루가치를 죽이고 강화 천도를 단행한다. 이후 몽골은 40년간 6차례 이상 침략을 해왔다.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과정에서 부인사 대장경판과 황룡사 9층 목탑 등 주요 문화재들이 불타고 토지는 황폐해져 갔다. 몽골에 항복한 고려 정부는 1270

년 개경으로 환도하였지만, 삼별초는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이동하며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겨 장기 항전을 계획하였다. 강화도는 바다에서의 싸움에 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섬이 크고 평야가 많아 곡식이 많이 생산되었고, 육지에서 배로 운반되는 세금을 받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몽골은 약 40년 동안 고려를 6차례 이상 침략하였다. 그때마다 고려인들은 끈질긴 항쟁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 냈다. (교학사 127-128쪽)

최우는 몽골과의 장기 항쟁을 위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오랫동안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고려인들은 끈질기게 항쟁하여 몽골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다. (금성 141-142쪽)

고려 정부는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 백성을 섬이나 산성으로 이주하게 하여 몽골과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몽골군은 금을 정복한 뒤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계속된 몽골의 침입에 고려는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부곡·소의 주민과 노비 등도 몽골에 대항하였다. (두산동아 108-109쪽)

몽골과의 전쟁에 유리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1232). 이후 고려와 몽골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다. 몽골의 계속된 침입에 고려는 결사 항전의 의지로 백성과 관군이 하나되어 몽골군에 저항하였다. (미래엔 123-124쪽)

최우는 몽골의 간섭과 횡포에 맞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몽골은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지만, 고려는 끈질기게 맞서 싸웠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부곡·소의 주민과 노비들도 크게 활약하였다. (비상교육 133쪽)

최씨 무신 정권은 대몽 항쟁을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으나, 실제로 몽골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운 것은 하층민이었다. (신사고 124쪽)

최우는 몽골과의 장기 항전에 대비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1232). 그리고 백성에게는 섬이나 산성으로 들어가 몽골에 대항할 것을 지시하였다. 몽골군은 금을 정복한 다음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전국을 휩쓴 몽골의 침략에 맞서 고려군과 백성은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지학사 130-131쪽)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고, 백성들에게는 성이나 산성으로 들어가 항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고려 사회에서 천대받던 하층민들까지 힘을 합쳐 몽골군에 저항하였다. (천재교과서 131-132쪽)

몽골의 침략에 맞서 귀주성에서는 박서의 지휘아래 관군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성을 지켜 냈다. 충주성에서는 도망간 관리들을 대신해 노비와 천민들이 힘을 합쳐 몽골군을 물리쳤다. 최씨 정권은 항전을 위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백성들에게는 성이나 산성으로 들어가 몽골군에 저항하도록 하였다. 몽골군은 금을 정복한 이후 본격적으로 고려 침략에 나섰다. (천재교육 131쪽)

집필지침에 고려가 장기간 항쟁을 벌일 수 있었던 대내외적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첫 번째로 대내적으로 수군이 약한 몽골군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려의 전 계층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외적 이유는 어떤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2) 고려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고려는 원과의 강화 이후 비록 원의 간섭을 받았지만, 부마국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려는 원에 상당한 공물을 바쳐야 했는데 그중에는 매와 공녀도 있었다. 원은 정동행성을 유지하여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고, 관제 또한 격하되었다.

그러나 몽골과 이처럼 오래 싸운 나라도 일찍이 없었고, 그나마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비록 고려가 몽골과 화의를 맺어 정치적 간섭을 받았지만 고려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고려 사람들의 즐기찬 항쟁 때문이었다.

(교학사 128쪽)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는 자주적인 정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됨으로써 원 제국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고려인들은 고려가 독립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읽기자료) 원 세조가 “고려의 제도와 풍습을 바꾸지 말라.” 라고 하였다고 ... (금성 143쪽)



원은 고려의 끈질긴 저항으로 직접 통치를 포기하고 간접적으로 고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고려는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한 풍속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원의 내정 간섭과 경제적 수탈에 시달리게 되었다. (두산동아 110쪽)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후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원의 내정 간섭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원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하면서도 고려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미래엔 125쪽)

당시 태자였던 원종은 쿠빌라이를 만나 고려의 독립을 약속받고 강화를 맺었다. (읽기자료) 고려 태자는 몽골과 강화를 맺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그 사이 현종이 사망하자 태자는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쿠빌라이를 만났다. 쿠빌라이는 태자를 크게 반기며, 고려의 풍습과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비상교육 134쪽)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 80여 년 간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원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 (신사고 126쪽)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국가 체제와 고유의 풍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원의 내정 간섭으로 자주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지학사 132쪽)

원을 세운 몽골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하면서도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읽기자료) 몽골과의 항쟁으로 고려가 위기에 처하자, 고려 태자(후의 원종)는 원의 쿠빌라이를 만났다. 쿠빌라이는 고려 태자가 직접 찾아오자 크게 기뻐하며 환대하였다. 태자는 쿠빌라이로부터 이후 왕위에 오르면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와 문화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약속이 원 간섭기까지 유지되면서 고려는 왕조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천재교과서 132쪽)

고려는 몽골(원)과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국가 체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천재교육 133쪽)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던 고려는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결국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려 태자(후에 원종)은 몽골에 가게 되는데, 당시 몽골은 현종이 사망하고 후계 계승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었다. 이때 태자는 쿠빌라이를 찾아가게 되고 쿠빌라이는 혼란한 상황 중에서 고려의 항복 사신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기뻐하며 본인이 왕이 된다면 고려의 왕조와 문화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인용문을 보게 되면 비상교육과 천재교과서는 읽기자료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강화 과정에 대한 전후사실을 이야기 않고, 고려가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축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교학사와 두산동아의 경우는 고려가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려 사람들의 지속적인 항쟁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오랜 항쟁이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었지만, 고려가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몽골의 혼란한 상황과 강화 사절단으로 대표였던 고려 태자의 외교능력 덕분이었다.<sup>53)</sup> 대외적인 사정을 생략한 상태로 우리의 끈질긴 항쟁 덕분에 자주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서술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다.

원은 관계격하 요구와 공물 이외에도 고려의 영토 일부를 점령했는데 서경 지역의 동녕부와 철령 이북의 쌍성총관부 제주의 탐라총관부가 바로 그곳이다.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는 곧 되찾았지만, 쌍성총관부의 경우는 공민왕이 무력으로 수복할 때까지 원이 점령하여 명과의 분쟁에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원은 화주에 쌍성총관부, 서경에 동녕부, 제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그 일대를 지배하였다. 이 중에서 동녕부와 탐라총관부가 관할하던 지역은 곧 되찾았지만, 쌍성총관부가 관할하던 지역은 공민왕이 무력으로 되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원의 지배를 받았다. (교학사 129쪽)

고려와의 강화 이후 원은 쌍성총관부, 동녕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고려 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다.

동녕부 : 최탄이 반란을 일으켜 원에 투항하자 원은 자비령 이북의 서북 지역에 동녕부를 설치하였다. 1290년 고려의 요청에 따라 이 땅을 고려 반환하고 동녕부는

53) 고려가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간에 걸친 항쟁 후에 스스로 귀부한데다가, 남송과 대치하고 있었던 몽고로서도 고려의 남송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또 고려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무인세력을 위시한 지배층 및 기층민의 일부가 끝까지 몽고에의 완전한 귀부를 반대했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몽고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고려를 그들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편입시키지 않고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 탐구당, 2002, 264쪽).

요동으로 옮겨졌다. (143쪽)

공민왕은 ...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으며, 복진 정책을 추진하여 요동 지방을 공격하였다. (금성 145쪽)

원은 쌍성총관부, 동녕부, 탐라총관부 등을 설치하여 고려의 일부 영토를 직접 다스리기도 하였다. (110쪽)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을 축소하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두산동아 111쪽)<sup>54)</sup>

원은 서경에 동녕부,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여, 황해도 이북과 철령 이북을 지배하였다. (미래엔 125쪽)

원은 서경에 동녕부, 화주에 쌍성총관부, 탐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해 직접 지배하였다. 충렬왕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를 돌려받았다.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동북쪽의 영토를 되찾았다. (비상교육 134-135쪽)

원은 전쟁 과정에서 고려의 영토를 빼앗아 쌍성총관부(화주), 동녕부(서경), 탐라총관부(제주)를 설치하였다. (좌우여백주) 동녕부는 충렬왕 때 회복되었다.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일시 회복 후 개편 및 존폐를 반복하다가 공민왕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신사고 126-127쪽)

원은 고려의 북부 지역에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설치하여 직접 다스리는 한편,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두어 말 농장을 운영하였다. (132쪽)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지학사 134쪽)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에게 빼앗겼던 철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천재교과서 135쪽)

원은 고려 영토의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다. 철령 이북 지역에 쌍성총관부, 서경에

54) 동녕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설치와 반환 및 수복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음

동녕부를 두고,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를 두었다. (133쪽)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다. (천재교육 135쪽)

인용문은 고려가 원에게 빼앗긴 영토와 수복에 대한 서술이다. 교학사의 경우 위치와 빼앗긴 시기 돌려받은 시기를 모두 설명하고 있다. 금성의 경우에는 빼앗기고 돌려받은 시기가 나와 있으나 탐라총관부를 언제 돌려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누락되어있다. 쌍성총관부의 위치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동녕부의 위치 설명인 자비령 이북은 지도에 없다. 두산동아의 경우에는 빼앗긴 것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를 돌려받았다는 서술은 없다. 다만 지도에 원의 반환이라 표시되어있어 원이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인지 우리의 요청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미래엔의 경우 위치와 빼앗긴 설명은 나오는데 여기에서 탐라총관부가 누락되었으며 되찾아 오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쌍성총관부의 경우는 탐구활동으로 그 설명을 대체하고 있다. 비상교육의 경우 위치와 되찾아 오는 과정까지 설명되어 있다. 지학사의 경우 빼앗긴 것에 대한 서술은 있으나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를 어떻게 돌려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천재교과서에서는 아예 빼앗겼다는 서술 없이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을 읽기자료까지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3)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원 간섭기 고려를 이끈 주도 세력으로써 원의 세력에 기대어 성장하였고, 농장경영을 통해 세력을 유지한 지배층이다. 『한국사』19에서는 민현구의 글을 인용하여 충선왕 복위교서에서 언급한 재상지종을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여기에는 ① 고려 전기 이래의 문벌귀족, ② 무신집권시대에 무신으로 득세하여 등장한 가문, ③ 무신란 이후 신관인층으로 대두하여 성장한 가문 및 이와 가까운 경우, ④ 대원관계의 전개를 통하여 등장한 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sup>55)</sup>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모든 내용을 서술하기 보다는 일부만 뽑아서 보여주는 경우가 다수였다.

5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 탐구당, 2002, 70쪽.

어린 시절을 원에서 보낸 고려의 왕들은 원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들을 높은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몽골어를 통역하는 사람이나 원에 가서 출세한 사람, 또는 그 친척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원의 세력을 이용하여 지배층으로 성장한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교학사 130쪽)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는 동안 몽골의 침입에 도움을 준 사람, 원과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 몽골어를 잘하는 사람, 일본 원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 등 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들 중 일부는 이전부터의 권력층과 더불어 새로운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을 형성하였다. (금성 144쪽)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원의 세력에 기대어 부와 권력을 유지하였기에 친원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두산동아 110쪽)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고려에서는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몽골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고려 왕자가 볼모로 잡혀 원에 있을 때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들이었다. 또 원의 영토 확장에 큰 공을 세우거나 응방의 관리, 원과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 등이 원의 힘을 이용하여 친원 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기철의 가문처럼 원의 황실과 혼인한 집안도 있었다. 이들은 기존의 문벌이나 무신 집권기에 성장한 가문과 함께 권문세족을 형성하여 고려 후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미래엔 126쪽)

권문세족 중에는 전부터 세력을 유지한 가문도 있었지만, 하층민 출신으로 몽골어를 잘해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국왕과 함께 원에서 생활하며 성장한 측근 세력도 있었다. 권문세족은 대부분 원의 세력에 기대어 성장하였기 때문에 친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비상교육 136쪽)

이들은 고려 전기부터 그 세력을 이어온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원을 배경으로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었다. (신사고 126쪽)

원 간섭기에 원을 배경으로 출세한 세력이 등장하였다. 그들 중에는 몽골어 통역관이나 환관 혹은 매를 길러 바치는 응방의 관리들이 많았다. 그리고 원에서 고려의 왕자를 돕던 사람들도 귀국하여 높은 관직에 등용되었다. 이렇게 원 간섭기에 등장한 친원 세력은 전통적인 문벌, 무신 정권 시기에 등장한 가문 등과 함께 고려 후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지학사 133쪽)

원이 고려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

들의 세력이 커져 갔다. 이 시기에 새로이 지배 세력이 된 이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천재교과서 133쪽)

원 간섭기에는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권세를 누렸다. 주로 몽골어를 통역하거나 원에 가서 출세한 사람들이었다. 또 국왕이 어렸을 때 원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측근들, 기철 가문처럼 원의 황실과 혼인한 외척 가문 등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처럼 고려 후기에는 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친원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기존의 문벌 귀족, 무신 정권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가문과 함께 권문세족을 형성하고, 고려 후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천재교육 134쪽)

천재교과서의 경우 권문세족을 이 시기에 새로 지배세력이 된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권문세족을 단순히 친원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쪽짜리 설명에 불과하다. 친원세력의 종류에도 다양한 분류가 있고, 이전부터 고위관직에 있었던 문벌귀족과 무신집권기의 신흥세력도 포함시켜야 바른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사고의 설명이 가장 단순 명료하다. 기존세력에 친원세력이 더해져서 권문세족이 되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 4) 신진사대부

신진 사대부는 글자 그대로 새롭게 정계에 진출한 사대부로 무신 집권기 무신의 업무를 도왔던 문신 관료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하급 행정 관리와 지방 향리의 자제들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성리학을 공부하고 친명정책을 지지하고 원을 배격하였다.

권문세족과 대립하며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세력이 신진 사대부이다. 이들은 주로 지방의 하급 행정 실무자인 향리의 자제들이었으며, 최씨 무신 정권기에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정책 자문 역할을 하면서 형성되었다. 고려 후기 공민왕 때에 이르러 유학 교육의 강화와 과거제의 정비로 크게 성장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고려 후기에 들어온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교학사 132쪽)

외침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권문세족의 부패는 심해졌고, 고려 정부의 위기도 커져 갔다. 이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 왕조의 개혁을 요구 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대부분 지방의 향리 출신으로서 주소 지주였으며, 성리학을 공부하여 과거를 통해 관리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시도할 때 크게 성장하였으며, 공민왕 이후에도 권문세족 및 불교 사원의 부패를 비판하며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금성 146쪽)

원 간섭기 여러 왕의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 향리나 하급 관리의 자제로 성리학을 배우고,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통하여 점차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고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며,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과 명이 교체되는 혼란기에 원을 멀리 하고 명과 화친할 것을 주장하였다. (금성 112쪽)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해 준 세력은 신진 사대부였다. 주로 지방 출신이었던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적극 참여하였다.

공민왕은 신진 사대부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교 경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미래엔 127쪽)

원 간섭기에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향리나 하급 관리의 자제들로, 명분과 도덕을 중시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권문세족과 달리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리가 되었으며, 유교 지식과 행정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중앙에 진출한 이들은 점차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고 견제하였다. 또한 원과 명이 교체되던 시기에 명과 화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명에 가서 사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입지를 강화하였다. (비상교육 138쪽)

공민왕 때 가거 제도와 교육 제도가 정비되면서 이를 통해 권문세족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이 급성장하였다. 신진 사대부라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지방 향리 출신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중소 지주였다.

신진 사대부들은 넓은 농장을 차지하고 백성을 괴롭히던 권문세족이나 불교 사원의 횡포에 맞서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아울러 권문세족과 연결된 원을 배척하고 중국 대륙에서 새롭게 일어난 명과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을 적극 받아들여 개혁의 기반으로 삼았으며, 불교가 백성에 끼치는 폐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덕치와 민본 이념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신사고 128쪽)

고려 후기에는 유교적 지식을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을 신진 사대부라고 한다.

신진 사대부는 대부분 지방의 향리나 하급 관리의 자제들로서 자기 고향에 토지를 소유한 중소 지주였다. 이들은 주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원을 통해 들어온 성리학을 받아들여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고 고려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권문세족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저지한 후 더욱 횡포를 부렸다. 심지어 이들은 신진 사대부들이 국가에서 받은 토지마저 빼앗기도 하였다. 이에 신진 사대부는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며 대립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자신의 생활 기반을 확대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권을 잡은 후 개혁의 방향을 놓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다. (지학사 135쪽)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과 구분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었다. 신진 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하고 권문세족을 비판하며 고려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천재교과서 136쪽)

원 간섭기에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안향, 이제현 등의 지식인들은 원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후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향리나 하급 관리 출신으로, 과거를 거쳐 중앙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신진 사대부라고 한다.

신진 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다. 신진 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고,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였으며, 국가의 운영은 유교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이 신진 사대부의 중심인물이었다. (천재교육 137쪽)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힘이 되었던 신진 사대부는 주로 지방 중소 지주의 자손들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권문세족의 횡포에 대항하여 토지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불교를 배척하고 친명 반원을 지지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비슷하게 서술하였지만, 금성과 두산동아, 천재교육에서만 신진 사대부가 불교를 배척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두산동아와 비상교육, 신사고에서만 친명반원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친원적 성격의 권문세족과 친명적 성격의 신진사대부를 대립시키고 권문세족의 기복신앙적 불교를 비판하는 신진 사대부의 성격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더 확실할 것이다.

## 5.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고려의 문화는 불교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국 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불사창건과 불탑건립이 이루어졌으며 거란과 몽골의 침입 시기에도 대장경을 제작하여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통해 신앙으로 사회 통합 및 국제 교류를 추진하였다.

<표 23> 『역사(1)』 IV-⑤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집필지침

⑤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고려청자, 불교 예술, 인쇄술, 역사서 편찬 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 중심의 문화가 꽃피었으며, 특히 국제적인 문화 교류 속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려 전기와 후기에 발달한 문화의 특징을 서술하고, 역사서 편찬은 고려 전기와 후기의 역사서를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유물들을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려청자와 불교 예술, 인쇄술 등 고려 문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집필지침에는 고려의 귀족문화와 국제 문화 교류를 통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의 발달, 고려 전후기 문화특징을 서술하라고 하였다. 역사서 편찬을 전후기로 나누어 서술하고 청자, 불교예술, 인쇄술을 이야기 하고 있다.

### 1) 고려청자

청자는 유약과 태토에 포함된 적은 양의 산화철이 환원해서 생긴 푸른색의 자기이다. 고려 도공들이 이런 청자를 개발한 것은 10세기 무렵이었다. 그리고 12세기 전반기, 고려의 청자기술은 가장 세련된 순청자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高麗史』에 의하면 고려의 도공들은 청자기와도 만들어냈다고 한다. 고려의 요업기술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12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고려 도공들은 도자공예에서 새로운 경지에 들어서는 기술을 창출했다. 상감청자를 개발한 것이다. 상감기술은, 그릇의 표면을 파고 그 속에 백토 혹은 흑토를 메워서 청자의 푸른 바탕에 백색과 흑색의 무늬를 장식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자기제조에서 전혀 새로운 기술이었다. 이 기술의 개발로 고려청자는 그 아름다운 푸른빛에 흑백의 선명한 도안이 화사하게 장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기의 장식기술은 그 폭이 훨씬 넓어졌다.<sup>56)</sup> 하지만 몽골의 침입과 가마터가 밀집해 있는 전라도 부안, 강진 등에 왜구의 약탈로 청자의 명맥은 끊어지게 되었다.

가장 이름난 것은 비취색이 나는 청자로 중국인도 천하의 명품으로 손꼽았다. 송의 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인 후 중국과는 다른 청자를 창조해낸 것이다. 고려의 청자 기술이 계속 발달하여 무신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12세기 초에는 상감 청자가 완성되었다. ... 상감 기법은 동양과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한 방법이었으나, 자기에 상감 기법을 적용한 것은 고려가 처음이다. 상감 청자는 12세기 전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무신 집권기에 발달하였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을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원 간섭기 이후 청자 제작 기술은 점차 쇠퇴하였다. 특히, 고려 말에 왜구가 자주 침입하면서 해안가의 많은 가마들이 폐쇄되었고, 도자기를 만들던 기술자들이 내륙으로 피신하였다. (교학사 141쪽)

푸른빛을 내는 청자는 귀족들의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서, 도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비색이라고 감탄할 정도로 높은 예술성을 자랑하였다.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장인들은 기존의 청자를 뛰어넘어 세계 최초로 상감 청자를 발명하였다. 청자는 원래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려 사람들은 중국 청자를 뛰어넘는 기술로 아름답고 다양한 비색의 청자를 만들었다. 청자에 무늬를 내는 기법은

5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1, 탐구당, 2002, 221-222쪽.

다양한데, 그중 가장 독창적인 것이 상감 기법이다. (금성 153-154쪽)

고려자기는 삼국과 통일 신라의 기술을 토대로 송의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졌으며,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특히 비취색의 청자는 뛰어난 곡선미와 아름다운 색깔로 유명하여 당시 중국인도 천하의 명품으로 손꼽았다. 11세기까지는 다른 색깔을 넣지 않은 순청자를 주로 만들었으나, 12세기에는 표면에 흠을 파고 여기에 다른 재질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상감법을 자기에 활용하였다. 상감법의 활용으로 고려 후기의 청자는 더욱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다. 상감 청자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두산동아 120쪽)

고려는 전통적인 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비취색이 나는 고려청자가 가장 유명한데, 중국인들도 고려자기를 천하의 명품으로 칭송하였다. 12세기 초에 고려청자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등 전성기를 이루었다.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자적인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 제조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고려 청자는 몽골과의 전쟁 이후 점차 쇠퇴하였다.

(미래엔 132쪽)

청자는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하였으나, 고려는 점차 독창적인 기법을 만들어 냈다. 11세기까지는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순청자를 주로 만들었고, 12세기 경에는 상감법을 창안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를 넣은 청자를 제작하였다.

(비상교육 145쪽)

특히, 고려청자는 세계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초기에는 무늬가 없이 은은한 푸른색의 아름다움만을 뽐냈으나 점차 자기의 표면에 음각, 양각의 무늬를 넣거나 금속 공예의 상감 비법을 활용하여 세련미와 정교함을 한껏 드러내었다. 고려의 독창적인 자기 기술로 만들어낸 상감 청자는 무신 집권자들에게 널리 애용되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13세기 중엽에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원 간섭기 이후 청자 제작 기술은 점차 쇠퇴하였고, 고려 말에 왜구가 자주 침입하여 해안 지방의 많은 가마들이 폐쇄되고 청자는 사라져 갔다.

(신사고 136쪽)

고려청자는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순청자로 발전하였다. 12세기 중엽에는 상감 기법을 도입하여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상감청자가 발달하였다.

(지학사 141쪽)

고려는 중국으로부터 자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으나, 12~13세기를 거치면서 고려청자와 같은 뛰어난 자기를 직접 생산하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문양을 새겨 넣는 상감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려청자를 만들었다. 고려청자의 품질과 예술적 완성도에 대해 당시 중국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천재교과서 139쪽)

고려의 자기는 신라의 기술을 바탕으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고려의 자기는 빛깔이 푸른 비색의 청자가 가장 유명하며, 중국인들도 천하의 명품으로 인정할 정도였다. ... 고려청자는 12세기에 이르러 고려만의 독창적인 상감 청자로 발전하였다. 고려청자는 14세기 이후 점차 쇠퇴하였다. 청자를 굽던 숙련된 기술자들이 몽골과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또 전라도 부안, 강진 등의 청자 생산지는 고려 말 왜구의 약탈로 문을 닫게 되었다. (천재교육 141쪽)

고려청자의 핵심은 비록 중국의 기술을 배워 만들기 시작했지만 중국에서도 인정할 만한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것과 상감 기법을 청자에 적용하는 독창성, 그리고 왜 청자의 명맥이 끊어졌는지 기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비슷한 서술 형태를 보였지만, 지학사에서는 11세기에는 순청자, 12세기에는 상감청자가 발달하였다고 간략하게 서술하여 고려의 기술력과 상감 청자의 독창성을 누락시켰다. 금성, 비상교육, 지학사는 고려청자의 몰락 이유를 기술하지 않았다.

## 2) 고려불교

의천과 지눌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승려로 불교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은 경제사가 제외되면서 그 위상이 감소하였지만, 문종의 넷째 아들로써 중국에 유학을 다녀오고 왕권강화를 위해 천태종을 창설 교선일치를 추구했던 승려이다. 천태종은 교리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물리적·강제적 통합으로 이후에 다시 분리되었다. 의천은 또한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과 함께 전소되었지만, 대장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주석인 교장의 목판사업을 주도하였다.

보조국사 지눌의 경우는 교종을 지원하는 문벌귀족 사회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무신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종교인으로 되돌아가자는 수선사(현 송광사) 신앙결사운동과 돈오점수·정혜쌍수라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여 선교일치를 추구했던 승려이다. 지눌은 조계종의 중천조로 추앙받고 있다. 수선사(현 송광사)는 삼보 사찰 중 하나로써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눌의 뒤를 이은 혜심

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고려에 성리학이 수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이러한 통합 운동에 따라 의천은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보조 국사 지눌은 승려들이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며 노동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지눌은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눌을 이은 혜심은 불교와 유교가 심성 수양이란 면에서 본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대각국사 의천은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초조대장경”과 “교장”은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며 그 인쇄본의 일부가 남아 있다. (교학사 137-138쪽)

의천은 교단의 통합 운동을 벌였다. 의천은 천태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추진하고, 이론과 실천을 모두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또한, 고려를 비롯하여 송, 요 등 여러 나라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간행하였는데, 이를 교장이라고 한다.

무신 집권기에 이르러 지눌은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고 승려들이 본연의 자세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며 정혜결사를 결성하고 수선사(전남 순천)를 중심으로 불교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용하기 위해 참선과 경전 공부를 모두 해야 한다는 정혜쌍수와 내가 곧 부처라는 참된 깨달음을 단번에 달성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자는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지눌을 이은 혜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교와 불교가 근본에 있어 하나라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금성 149-150쪽)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열고, 경전의 연구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송, 거란, 일본 등에서 불교 경전을 모아 교장을 펴냈다.

지눌을 중심으로 한 선종 승려는 세속적으로 변한 불교를 개혁하려는 운동을 펼쳤다.

또한,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눌의 사상은 조계종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두산동아 116쪽)

불교 종파간의 대립이 점차 커지자 대각국사 의천은 불교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여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130쪽)

지눌은 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조계종을 창시하였고,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미래엔 134쪽)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어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교단은 다시 분열하였다. 무신 집권기에 지눌은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승려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개혁 운동을 펼쳤다. 또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선교 일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비상교육 143쪽)

대각국사 의천은 송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후,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과 선종으로 분열된 고려 불교를 통합하려하였다.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에 두고 선종을 통합하려는 사상 체계를 지녔다.

불교 개혁 운동을 이끌어간 대표적인 승려는 지눌이었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돈오점수, 정혜쌍수의 수행 방법을 내세웠다. 또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발전시켰다. 조계종은 무신 집권자의 후원을 받으며 교세를 넓혀 갔다. (신사고 132-133쪽)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천이 죽은 뒤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 송광사를 중심으로 조계종이 크게 일어났다. (지학사 138쪽)

(읽기자료) 의천 : 고려 중기 문종의 아들로, 불교 교단을 통일하고 천태종을 발전시켰다. (142쪽)

무신 정변으로 고려 사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지방의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를 정화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눌을 중심으로 송광사에서 일어난 결사 운동이 대표적이다. 또 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분리되어 갈등과 폐해가 심해지자 지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계종이 성립되었다. (천재교과서 144쪽)

천재교육의 경우는 의천에 대한 서술이 전무하다. 의천뿐 아니라 지눌·혜심 등 승려에 관련된 서술은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는 것 밖에 없다. 천재교과서는 의천에 대해서는 읽기자료로 간략하게 문종의 아들이자 천태종의 창시자라고 서술하였다. 지눌에 대한 서술도 선교일치를 이루고 조계종을 창시했다는 간략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

교장의 제작과 관련하여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세 출판사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지눌의 핵심은 선교일치의 종파 통합도 있지만,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결사운동이다. 지학사에서는 신앙결사운동을 제외한 체 선교일치와 조계종을 창시했다는 서술만을 하고 있다.

미래엔과 천재교과서의 경우 조계종의 창시를 지눌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계종은 지눌 이전 시대에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계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sup>57)</sup>

불상은 철로 주조한 커다란 것(철불)이 유행하였고, 거대한 석불 입상도 많이 세워졌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 이천동 마애 여래 입상과 같은 거대한 불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분방함과 지역적인 특색을 잘 보여 준다. 이는 신라 말 호족 세력이 무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문화의 내용이 한층 다양해 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영주 부석사 소조 여래 좌상과 같이 신라의 불상 양식을 계승한 걸작도 있다. (교학사 144쪽)

불상의 경우 고려 초에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과 같은 큰 철불과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과 같은 대형 석불이 만들어졌다. (금성 155쪽)

불상의 제작에는 철이나, 돌, 금동 등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었다.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같은 대형 철불과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같이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불상이 유행하였다. 또한,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영주 부석사 소조 여래좌상도 만들어졌다. (두산동아 117쪽)

불상은 초기에 쇠로 만든 철불이 유행하였고, 신라의 불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정

57) 이와 같은 문제는 국정교과서시기에도 언급된 문제였다(김은희, 「의천과 지눌에 관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의 분석 : 5, 6,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5~38쪽).

도로 거대한 석불이 많이 만들어졌다. (미래엔 131쪽)

불상은 초기에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을 많이 제작하였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같이 거대한 석불도 다수 조성하였다. (144쪽)

(읽기자료) 고려 전기의 불상은 대체로 크기가 크고,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안정감이 떨어진다. 고려 후기에는 원에서 들어온 라마교의 영향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불상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비상교육 146쪽)

고려 시대에는 불상 제작에 철, 돌, 점토, 종이 등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었다. 신라와는 달리 철불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규모는 크지만 인체 비례의 균형이 다소 맞지 않는 석불도 곳곳에 세워졌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은 큼지막한 두상과 자연스런 생김새를 지니고 있어 고려 석불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라 불상의 양식을 닮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은 빼어난 귀족적 세련미를 자랑한다. (신사고 134쪽)

고려 초기에는 지방 문화가 발달하여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같은 웅장한 분위기의 거대한 석불이 많이 만들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호족 세력의 후원으로 대형 철불이 제작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불화도 많이 제작되었다. (지학사 139쪽)

또 지방 호족들의 요구로 각 지역에 세워진 불상과 석탑은 지역에 따라 독특한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 또 원의 영향을 받아 불교 교리와 불상 및 석탑을 제작하는 방식 등이 변화하였다. (천재교과서 143쪽)

불상은 고려 초기에는 신라 말에 이어 쇠로 만든 철불이 유행하였다. 또 신라 불상에 비해 인체의 균형이 맞지 않은 거대한 석불이 많이 만들어졌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유명하다. (천재교육 139쪽)

초기 고려 불상의 특징은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불상도 있지만, 불상 재료의 다양화와 크기의 대형화다. 후기에는 원에서 들어온 라마교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세밀한 불상이 제작되었다. 비상교육과 천재교과서를 제외하면 고려 후기의 불상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가 없으며, 천재교과서도 서술만 했을 뿐 사진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고려 시대의 불화는 세계 불교 회화에서 최고로 손꼽힌다. 고려인에게 불교는 곧 생활이었으며, 불화에 그려 놓은 부처는 고려인이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고려 불화는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유명한 화가가 그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호화롭고 정교하여 귀족적인 분위기가 돋보인다. 고려 불화는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에 약탈당하여 현재 대부분 일본에 있다.

(교학사 144쪽)

(읽기자료) 불화란 불교 그림을 말한다. 주로 예배에 쓰거나 절을 장식하기 위해,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정토의 이상 세계에서 살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렸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 불화는 대체로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사이에 제작되었다.

고려 불화에는 고려인들의 영원과 신앙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며, 종교 미술품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성을 자랑한다. 현재 160여 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0여 점만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일본에 있다.

(금성 156쪽)

그림으로는 불교 세계를 담은 다양한 불화가 그려졌으며 ... (두산동아 119쪽)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요구에 따라 화려한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화가들은 불화에서 부처의 모습을 섬세한 선이나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하였다. 불화에는 벽에 그리는 벽화, 천이나 종이에 그려서 벽에 거는 탕화가 있었다. 다양한 부처의 모습을 그린 고려 불화가운데는 혜허의 ‘수월관음도’가 유명하다.

(미래엔 136쪽)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아미타불도,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를 많이 그렸는데, 비단 바탕에 금가루 등 광물성 안료를 사용하여 부처와 이상 세계를 표현하였다. (145쪽)

(읽기자료) 고려 시대에는 불화가 왕실과 귀족의 소장품으로 인기를 얻으며 많이 그려졌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작품은 14세기의 것이며, 표현과 기법이 섬세하고 아름다워 세계적으로도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비상교육 146쪽)

고려 시대의 불화는 주로 왕실이나 귀족의 후원으로 유명 화원들에 의해 그려졌다. 그리하여 고려 불화는 수월관음도나 혜허의 관음보살도와 같이 호화롭고 정교한 귀족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일본 불화와는 달리 금가루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임진왜란 등을 겪으면서 약탈당하여 현재는 대

부분 일본에 남아 있다.

(신사고 135쪽)

고려 귀족들 사이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불경을 베껴 쓰는 것이 유행하였다. 또 고려 후기에 그려진 불화는 귀족들이 꿈꾸던 이상 세계를 호화롭고 정교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

(지학사 141쪽)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후원을 받아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천재교과서 143쪽)

고려 시대에는 귀족 사회가 발전하고 불교가 융성하였다. 이에 따라 귀족의 취향을 반영한 불교 예술이 크게 발달하여 사경과 불상, 불화 등이 많이 제작되었다. 귀족들은 사경이라 하여 불교 경전을 손으로 베껴 쓰고, 경전 내용을 요약한 그림을 여기에 넣었다.

고려 후기에는 불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왕실과 귀족들은 자신이 세운 절이나 집에 불화를 걸어 놓고 현재와 죽은 뒤의 복을 빌었다. 고려 불화는 중국, 일본과 달리 금가루가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천재교육 139쪽)

불화와 사경은 고려 시대의 귀족불교 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유물이다. 사경은 금이나 은으로 비단에 불경을 베껴 쓰고 경전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을 말한다. 불화의 제작은 왕족과 귀족의 복을 빌기 위해 제작되었는데 화려하고 정교하며, 고려 귀족들이 꿈꾸는 이상을 담았다. 안타깝게도 고려 불화는 대다수가 약탈당하여 대부분 일본에 남아 있다. 이처럼 불화와 사경은 고려 지배층의 귀족적 삶을 대변하는 작품들이다. 두산동아와 천재교과서에서는 불화를 간략히 서술하여 귀족적 특징과 불교문화의 화려함을 축약해서 서술하였다. 지학사와 천재교육에서만 사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였지만, 형태가 더욱 다양해졌고, 전국에 걸쳐 세워졌다. 고려 전기에 많이 나타난 다각다층탑은 평창 월정사 8각9층 석탑이 대표적이다. 신라의 석탑에 비해 안정감은 부족하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고려 후기의 석탑으로는 원의 영향을 받은 개경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유명하다. 이탑의 양식은 조선 시대의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졌다. 승탑은 신라 후기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 많고, 장식이 정교하고 다양하였다. (교학사 143쪽)

석탑은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김제 금산사 육각 다층석탑과 같은 다각의 다층 석탑이 많이 제작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제작되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승탑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여주 고달사지 승탑과 같은 팔각 원당형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몸체의 중간 부분이 공 모양을 한 총주 정토사지 흥법국사탑과 평면 4각형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등 다른 형태의 것도 만들어졌다. (금성 155쪽)

석탑에서는 다각 다층탑이 유행하였다. 고려 전기의 석탑으로는 월정사8각9층 석탑이 대표적이다.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조선 전기의 석탑 건축에 영향을 끼쳤다. (두산동아 117쪽)

고려 시대에는 신라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석탑이 제작되었다. 특히 신라에 비해 각이 많고 층수가 높은 형태의 석탑이 여러 곳에 세워졌다.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개성의 현화사 7층 석탑, 오대산 월정사 8각 9층 석탑 등이 있다. (미래엔 131쪽)

석탑은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같은 다각 다층탑이 유행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처럼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 제작되었다. 승탑도 많이 만들었는데,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 등이 유명하다. (144쪽)

(읽기자료) 고려 시대 석탑은 대체로 기단이 좁고 층수가 많다. 승탑은 팔각 원당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표면을 정교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비상교육 146쪽)

고려 시대에는 통일 신라 양식을 계승하여 3층 석탑이 많이 제작된 한편, 점차 독특한 형태미를 갖춘 다각 다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개성의 현화사 7층 석탑과 오대산의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 전기에 세워진 대표적인 석탑이다. 후기의 석탑으로는 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 10층 석탑이 유명하며 이탑의 양식은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졌다. 한편, 신라 말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승탑도 더욱 세련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신사고 135쪽)

석탑은 신라의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다각 다층탑이 등장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송의 영향을 받아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건립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세워졌다. 그리고 선종이 유행하면서 고승들의 묘탑인 승탑이 많이 제작되었다. (지학사 139쪽)

지방 호족들의 요구로 각 지역에 세워진 불상과 석탑은 지역에 따라 독특한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 또 원의 영향을 받아 불교 교리와 불상 및 석탑을 제작하는 방식 등이 변화하였다. (천재교과서 143쪽)

고려의 탑은 신라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처럼 6각이나 8각의 다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 조각이 화려하고 섬세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등이 만들어졌다.

승려의 사리를 넣은 승탑도 많이 제작되었다. 여주 고달사지 승탑,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등이 대표적이다. (천재교육 140쪽)

고려 탑의 특징은 신라 시대에 비해 다각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지고, 승탑이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초기는 송의 영향을 받아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제작되었다. 후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 경천사 10층 석탑이 만들어지고 후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양식이 이어졌다. 신사고의 경우 통일 신라 양식을 계승한 3층 석탑이 많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월정사 8각9층 석탑과 경천사 10층 석탑만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은 승탑에 관한 언급이 전무한 실정이다.

고려 시대의 예술은 귀족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귀족적이며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였다. 건축 분야에서 개경의 궁궐을 비롯하여 현화사, 흥왕사 등의 사찰이 많이 건립되었지만 모두 불타 없어졌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조 건물은 13세기 이후에 건축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다. 이들 건물은 고려 전기에 유행한 배흘림 양식으로 지어졌다. 배흘림 양식은 기둥 가운데를 볼록하게 만들어 안정감을 준다. (교학사 143쪽)

건축은 궁궐과 사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 궁궐터(만월대) 등과 사원의 유적지를 통해 고려 전기 건축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 후기 건축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다포식 건축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으로 계승되었다. (금성 155쪽)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하여 많은 사찰과 석탑이 세워졌으며, 불상이 만들어졌

다. 사찰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등이 남아있다.

(두산동아 117쪽)

건축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으나, 고려의 궁궐 터인 개성 만월대를 통해 고려 건축의 웅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31쪽)

고려 시대의 건축은 궁궐과 사원이 중심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궁궐은 없지만, 사원 건축물 몇 개가 남아 있어서 고려 시대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또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 만들어졌는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이다.

(미래엔 136쪽)

고려 시대의 건물은 뛰어난 건축 기술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이다. 이들 건물은 배흘림기둥을 사용하였고, 주심포 양식으로 지었다. 고려 후기에는 황해도 황주의 성불사 응진전처럼 다포 양식의 건물도 지었다. (비상교육 144쪽)

고려의 건축은 13세기 이후에 건립된 몇몇 사원 건축물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현존하는 고려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있는데, 기둥 가운데를 불룩하게 만드는 배흘림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사고 135쪽)

13세기 이후에 건축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목조 건축물은 고려 전기에 유행한 배흘림기둥 양식을 계승하여 안정감이 뛰어나며, 주심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지학사 139쪽)

고려 시대에는 전국 각지에 대규모 사찰이 지어졌지만, 여러 차례 큰 전쟁을 치른 후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남아 있는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통해서 고려 후기 사찰 건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천재교과서 143쪽)

고려의 건축물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으나, 13세기 이후의 불교 건축물이 일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된 고려 후기의 목조 건축물이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배흘림기둥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유명하다. (천재교육 140쪽)

고려시대 건축물은 전기의 건축물들은 전란으로 인해 다 없어지고 그 터로 응

장했던 과거를 추정해볼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등 고려 후기 사찰 건축물들이다. 고려 초에는 주심포 양식으로 대들보 하나에 공포 하나를 올리는 구조였으나 원 간섭기의 영향으로 공포가 늘어나는 다포양식이 유행하여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또 기둥은 배흘림기둥으로 기둥 하단에서 1/3 지점이 폭이 가장 넓어 안정감을 준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배흘림기둥과 주심포양식을 고려 건축의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금성의 경우는 배흘림기둥에 대한 서술 없이 서술로만 공포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배흘림기둥과 주심포, 다포 양식을 사진으로 보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 지학사의 경우는 극락전을 멀리서 찍은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배흘림기둥과 주심포 양식을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사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인쇄술 대장경과 금속활자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 물리치자는 소망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16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공식명칭은 해인사 대장경판으로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자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한다.

“팔만대장경”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16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1,500여 종의 불교 경전 내용이 담겨 있어, 불교 경전에 대한 고려인의 이해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목판의 총수가 팔만 장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하며, 글자체도 매우 아름답다.

“팔만대장경”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세계의 대장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내용 면에서도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는다. (교학사 142쪽)

목판 인쇄술은 불교 경전을 정리한 대장경의 조판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우리나라 목판 인쇄 기술 및 기록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금성 157쪽)

몽골 침입 당시 조성된 팔만대장경은 고려 목판 인쇄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두산동아 119쪽)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졌다. 또 글씨의 아름다움도 배어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꼽힌다. (미래엔 135쪽)

현재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판은 글자 모양과 문장이 정확하고 보존 상태가 뛰어나 고려 목판 인쇄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비상교육 149쪽)

팔만대장경은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16년간의 노력 끝에 완성되었다. 정교한 판각과 정확한 내용은 당시 목판 인쇄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또한 여기에 담겨 있는 1,500여 종의 방대한 불교 경전을 통해 고려인들의 불교에 대한 높은 이해 수준을 엿볼 수 있다. 팔만대장경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이며,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사고 137쪽)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은 고려 시대에 발달한 목판 인쇄술의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 (지학사 142쪽)

현재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은 글자 모양과 문장이 정확하고 보존 상태가 뛰어나 고려 목판 인쇄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천재교과서 140쪽)

특히 불교 경전을 정리한 대장경의 조판으로 고려 인쇄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천재교육 142쪽)

팔만대장경에 관한 서술은 세계 최고수준의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몽골의 침입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재를 만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장경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뛰어난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산동아, 지학사, 천재교육의 경우에는 고려의 대장경이 세계 최고 인쇄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고만 서술하여 그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교학사와 신사고에서는 방대한 불교 경전을 담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목판 인쇄술은 한 책을 여러 권 인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여러 종류의 책을 인

쇄할 수는 없었다. 목판은 글자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글자를 빼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금속 활자는 책 내용에 따라 필요한 낱말의 활자를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인쇄하는 데 편리했다. 고려는 일찍부터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으며, 마침내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금속 활자 인쇄술은 글자 모양이 찍힌 거푸집에 녹인 쇳물을 부어 금속 활자를 만든 다음, 그것을 판에 배열하여 책을 찍는 기술이다. 고려는 몽골과 전쟁하던 시기에 강화도에서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1234).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금속 활자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직지심체요절”이다.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 승려가 정리한 불교의 가르침을 그의 제자들이 두 권의 책으로 펴낸 것이다(1377).  
(교학사 142쪽)

고려인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금속 활자로 찍어낸 최초의 책인 “상정고금예문(1234)”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1377)”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금성 157쪽)

고려 후기에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다. 1234년에 금속 활자로 간행된 “상정고금예문”은 서양보다 200여년이나 앞선 것이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직지심체요절”이다.  
(두산동아 119쪽)

인쇄술은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고려는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1234). 이 책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것이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직지심체요절이다(1377).  
(미래엔 135쪽)

고려의 인쇄술은 더욱 발달하여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이르렀다. 1234년에 “상정고금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하지 않으며,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고 있다.  
(149쪽)

(읽기자료) 우리나라는 목판 인쇄로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였다. 이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고려가 1377년에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았으며, 2001년에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비상교육 151쪽)



세계 최초로 만든 금속 활자도 대장경과 더불어 고려의 자랑거리이다. 1234년에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직지심체요절”이다. 이는 유럽의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이다. 금속 활자는 책 내용에 따라 필요한 활자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신사고 137쪽)

고려 시대에는 불교와 유교가 발달하면서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다. 또한 과거가 실시되면서 유교 교육에 필요한 서적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목판 인쇄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거란, 몽골 등 외적의 침입으로 대장경을 비롯한 여러 서적이 불타 없어졌다. 이에 강화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다양한 책들을 새로 편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목판 인쇄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다. 금속 활자는 여러 종류의 책을 인쇄하는 측면에서 목판보다 유리하다.

(읽기자료) 고려 시대에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최초의 책은 몽골과의 전쟁 기간 동안 간행된 “상정고금예문(1234)”이다. 이 책은 서양의 금속 활자 인쇄본보다 200여 년 앞선 것이었으나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대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학사 142쪽)

귀족들의 글을 문집으로 출판하기 위해 금속 활자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였다.

금속 활자를 이용한 최초의 책은 몽골과 전쟁 중이던 1234년에 간행된 “상정고금예문”이지만,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1377년에 간행된 “직지”는 현재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천재교과서 140쪽)

발달된 목판 인쇄술을 바탕으로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금속 활자는 책 내용에 따라 필요한 낱말의 활자를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목판보다 여러 종류의 책을 인쇄하는 데 유리하였다.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최초의 책은 몽골과의 전쟁 중에 간행된 “상정고금예문”이다(1234). 이 책은 서양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직지”(1377)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천재교육 142쪽)

금속활자에 관한 서술의 핵심은 세계 최초로 고려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점이다. 처음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은 1234년 『상정고금예문』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이 오늘날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직지심체요절』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서술해야 된다. 교학사, 비상교육, 신사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에서만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임을 알리고 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는 설명만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자료로 현재 『직지심체요절』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을 연결시켜주면 근현대사 시간에 이 책이 어떻게 프랑스에 있는가 하는 학습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최초의 활자라고 서술하였기 때문에 서양보다 몇 년 앞선다거나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보다 앞서다는 언급은 불필요한 서술이라 생각된다.

#### 4) 역사서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실록을 작성하였지만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불타 없어지자 7대 실록 다시 만들었다. 그러나 이마저 불타 없어지고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책이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지은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의 정치와 제도를 서술하였으며, 신라를 정통으로 보는 신라계승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고려 후기에는 많은 책이 남아 있는데 이규보의 『동명왕편』,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이다.

유학이 발달하면서 일찍부터 많은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는 고려 초에 쓰인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편찬된 것이다. 삼국의 정치와 제도 등이 서술되었으며 신라 계승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교학사 140쪽)

역사책의 편찬도 활발하였다. 현종 때에는 태조부터 7대 목종 때까지의 “7대 실록”이 편찬되었으며, 인종 때에는 김부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는 고려가 신라를 계승하였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금성 152쪽)

김부식이 유교적 입장에서 편찬한 “삼국사기”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두산동아 118쪽)

“삼국사기”는 1145년 인종의 명령에 의해 김부식이 여러 학자와 함께 유교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책으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으로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삼국사기”는 삼국과 통일 신라 시대 국왕들의 활동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군사, 제도, 연표, 인물, 등 분야별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신라를 정통 왕조로 보았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고, 그 평가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호의적이다. (미래엔 137쪽)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편찬되었으며, 고려가 통일 신라를 계승한다고 보았다. (비상교육 150쪽)

유학이 발달하면서 합리적인 서술을 중시하는 유교 사관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저술된 “삼국사기”는 지금까지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신사고 131쪽)

인종 때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지학사 140쪽)

고려 중기에는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사기”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삼국사기”는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변천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당시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에 기초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와 군신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천재교과서 141쪽)

인종 때에는 김부식이 국왕의 명령에 따라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역사관에 따라 삼국 시대부터 후삼국 시대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 책은 현재까지 내용이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천재교육 143쪽)

미래엔은 탐구활동으로 역사서에 대해 서술하다 보니 다른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다. 미래엔, 천재교과서, 천재교육을 제외한 교과서에서 『삼국사기』가 관찬 사서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학사, 금성, 미래엔,

비상교육에서만 『삼국사기』의 신라 중심서술을 언급하고 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편, 무신 정변 이후 사회 혼란과 몽골 침략을 경험한 학자들은 전통문화와 민족 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책을 편찬하였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이 대표적이다. “동명왕편”은 고구려 주몽의 일대기가 노래로 쓰여 있어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잘 나타나 있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의 시작이 단군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연은 “삼국유사”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최초로 실어 우리 역사의 자주성을 강조하였으며, 설화, 노래, 풍속, 불교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전해 주고 있다.

고려 후기에는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면서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인 사관이 나타나는데, 이제현의 “사략”이 대표적이다. (교학사 140쪽)

무신 정권이 성립된 후 이규보는 고려를 건국한 주몽을 영웅으로 묘사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몽골의 침입과 원의 간섭을 겪게 되면서 자주적인 민족의식이 강해졌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13세기 말,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으로 단군의 고조선을 설정하였으며, 우리의 고유문화와 불교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실었다.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도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인식하고 중국과 대등한 우리 역사를 강조하였다. (금성 152쪽)

무신 정변과 몽골의 침략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휴의 “제왕운기”, 일연의 “삼국유사” 등 자주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도 편찬되었다. 특히 “삼국유사”는 불교적 관점에서 서술된 역사서로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실는 등 우리 역사의 자주성을 강조하였다. 그 뒤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며 정통 의식과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인 역사서도 편찬되었다. (두산동아 118쪽)

(고려 후기의 역사 서술) 동명왕편, 제왕운기 : 무신 정변 이후 몽골의 침입 등으로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주몽의 업적을 시로 표현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 “제왕운기”는 단군에서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단군 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하는 자주 의식을 나타내었다. 삼국유사 :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 일연이 서술한 “삼국유사”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과 원의 내정 간섭으로 지쳐 있는 백성에게 민족의

금지와 자주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불교적 관점에서 편찬되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열식으로 자유롭게 서술한 이 책에는 전설과 단군 신화 등이 소개되었다.

(미래엔 137쪽)

무신 집권기와 원 간섭기를 겪으면서 자주 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들이 편찬되었다.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저술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냈다. 일연은 “삼국유사”에 고대의 설화나 전설을 수록하여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처음으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단군 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유교 사관이 나타났으며, 역사서로는 이제현의 “사략”이 대표적이다. (비상교육 150쪽)

고려 후기에는 유교 사관에서 벗어난 역사 서술이 이루어졌다. 승려 각훈이 왕명에 따라 지은 “해동고승전”은 삼국 시대 승려의 전기를 기록하였으나 일부 내용만 전하고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동명왕을 고구려의 건국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와 더불어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설화와 야사를 수록하였다.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단군 조선을 우리 민족의 첫 국가로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단군과 고조선을 내세우는 역사의식은 원의 간섭을 극복하려는 자주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한편, 고려 말에 쓰여진 이제현의 “사략”에는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사관이 반영되었다. 이는 조선 시대 역사 서술에 영향을 주었다.

(신사고 131쪽)

무신 집권기와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민족적 자주 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들이 편찬되었다. 이규보는 주몽의 일대기를 다룬 ‘동명왕편’을 썼고,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단군 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하였다. (지학사 140쪽)

한편, 북방의 이민족들과 벌인 전쟁으로 나라가 곤경에 처하자, 고려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자부심을 드높이고자 하였다. 충렬왕 때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에서는 우리 민족의 시조로 단군을 설정하였다. 단군 신화를 통해 고려 시대까지 이어져 온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또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몽골과의 항쟁이 끝나고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에 백성들에게 고려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

한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재교과서 141쪽)

고려 후기에는 무신 정변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몽골의 침략과 원의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역사책이 편찬되었다.

이규보는 고려의 주몽을 영웅으로 찬양하는 시와 이야기를 담은 ‘동명왕편’을 썼다.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승려 일연은 “삼국유사”를 지어 단군 신화에서부터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승휴는 단군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역사를 시로 서술한 “제왕운기”를 지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천재교육 143쪽)

천재교과서에서 「동명왕편」을 설명하지 않았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관한 서술은 전 교과서에서 동일하다. 신진 사대부의 성리학적 사관을 드러낸 『사략』은 교학사, 비상교육, 신사고에서만 나타나는데 두산동아는 역사서 서술 마지막에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며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역사서도 편찬되었다 라고 하면서도 이제현의 『사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 IV.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학습 보조 자료 분석

학습 보조 자료는 교과서의 발문, 본문, 평가를 제외한 모든 자료다. 여기에는 사진/삽화, 읽기자료(탐구활동, 체험학습활동), 지도, 좌우여백 주, 도식자료(연표·계보) 등이 있다. 역사 교과서가 검정 체제로 바뀌면서 판형이 변형되고, 각각의 교과서마다 특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습 보조 자료이다. IV장에서는 텍스트자료와 삽화 및 지도 자료로 분류하여 내용 서술과 교과서별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학습 보조 자료 중 텍스트 자료

###### 1) 읽기 자료

읽기 자료란 학습 보조 자료 중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한 부분으로 사료나 사진 등이 포함된 종류도 있다.

<표 24>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읽기 자료 비교

교과서	분류	읽기 자료 내용
교학사	인물·사건	훈요 10조, 시무 28조, 과거제, 무신정권의 명암, 왜구의 노략질과 화포 개발
	사회·제도	권문세족의 횡포
	문화·교류	고려의 활발한 국제 교류, 몽골풍과 고려양, 고려의 불교 통합 운동,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직지심체요절
금성	인물·사건	해상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한 왕건 집안, 고려로 귀화한 발해 유민, 고려를 지킨 귀주성 전투,
	사회·제도	글자를 모르면서 역사 편찬까지 맡은 무신,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
	문화·교류	왕건군과 견훤군의 싸움에서 유래한 차전 놀이, 고려인의 소망을 담아 그린 불화
두산 동아	인물·사건	공산전투, 윤관의 여진 정벌과 동북9성, 문벌 귀족 이자겸, 미천한 출신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이의민, 몽골군을 물리친 김윤후, 최무선의 화약 무기 개발

	사회·제도	고려의 중앙 통치기구,
	문화·교류	고려 속의 몽골·몽골 속의 고려, 고려 시대의 불상, 고려의 활판 인쇄술
미래엔	인물·사건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무신은 왜 정변을 일으켰나요?, 최초로 성리학을 연구하고 전파한 학자들
	사회·제도 문화·교류	-
비상교육	인물·사건	후삼국 통일의 현장, 고려사 기록으로 본 고려와 여진의 관계 변화, 무신 정권기에 문인이 성장하였다고요?, 삼별초의 흔적이 남아있는 항몽유적지,
	사회·제도	농민천민의 붕기 배경,
	문화·교류	서해안에서 보물선을 발견하였다고요?, 우리문화 속 몽골풍습 /몽골문화 속 고려풍습, 권문세족의 횡포, 연등회와 팔관회, 사원에서 찾아보는 고려 시대 건축 양식, 나전칠기 공예의 발전, 원 영향을 받은 고려 후기 그림들, 해인사 대장경판은 어떻게 만들고 보존하였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비교
신사고	인물·사건	훈요 10조, 김부식과 묘청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을까?,
	사회·제도	소, 최씨 정권의 호화로운 강화도 생활, 대몽항쟁을 위한 임시수도 강화도
	문화·교류	송 사신 서공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 주꾸미가 건져 올린 고려청자, 몽골풍과 고려양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까닭?, 풍수지리설은 고려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상감청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 천년의 숨결을 전하다
지학사	인물·사건	고려의 북진정책, 최승로, 문신에게 모욕을 당하는 무신, 무신 정권 시기에 등용된 문인들, 승병장 김윤후, 신진 사대부의 분열, 왜구의 출몰
	사회·제도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 권문세족의 대농장 확대
	문화·교류	해상 교류의 발달, 고려와 몽골의 문물교류, 상감청자의 발달, 고려의 금속 활자, 목화의 전래
천재교과서	인물·사건	왕건과 견훤의 진검 승부 고창 전투, 훈요 10조, 윤관의 여진 정벌을 그린 척경입비도, 칼보다 붓이 강하다고? 천만의 말씀!,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의 만남 고려는 무엇을 얻어 냈나요?, 친원 세력의 숙청,
	사회·제도	문벌 귀족은 음서와 과거 중 어느 쪽을 선호했나요?, 왕과 겹사돈을 맺은 문벌 귀족, 신분제의 동요, 몽골의 세계 제패, 외국어를 잡아라! 원 간섭기 출세의 지름길,
	문화·교류	고려 사람들도 유행을 좇으며 살았나요?, 송의 사신도 감탄한 고려청자, 고려의 부처들은 왜 못생겼나요?, 고려인, 세계를



		만나다
천재 교육	인물·사건	고려와 후백제의 대결 공산전투와 고창전투, 최승로 시무 28조, 묘청과 김부식을 통해서본 서경 천도 운동, 망이·망소이 형제는 왜 봉기를 일으켰나요?
	사회·제도	과거제의 실시로 신라와 달라진 점,
	문화·교류	벽란도는 어떤 항구였다, 무신들은 어떤 놀이로 체력을 단련했나,

위 표는 교과서별 읽기 자료를 인물·사건 / 사회·제도 / 문화·교류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비상교육과 신사고는 문화·교류 부분에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학사와 천재교과서도 다섯 개 이상의 문화·교류 부분의 읽기 자료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엔은 9종의 교과서 중 가장 적은 수의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탐구 활동으로 20문제를 제시하여 읽기 자료가 탐구 활동으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좌우여백 주

좌우여백 주는 본문에 등장하는 어려운 낱말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문장에 대한 설명을 좌우여백에 한 두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학습 보조자료이다.

<표 25> 『역사(1)』 고려의 성립과 변천 좌우여백 주 비교

교과서	읽기 자료 내용
교학사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왕규의 난, 과거제, 향·부곡·소, 강조의 정변, 별무반, 다루가치, 삼별초, 흥건적과 왜구, 신진 사대부, 국사와 왕사, 대장경, 무속 신앙, 성황 신앙, 만권당
금성	대광현, 사성 정책,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흑창, 노비안검법, 전시과, 시무 28조, 낭사, 향·부곡·소, 공음전, 별무반, 삼별초, 동녕부, 정동행성, 철령위, 과전법, 교관겸수, 최충, 주심포 양식
두산 동아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노비안검법, 향리, 향·부곡·소, 공음전, 정안국, 강조의 정변, 별무반, 도방, 삼별초, 다루가치, 정동행성, 전민번정도감, 성리학
미래엔 비상 교육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문벌 귀족, 도방, 삼별초, 정동행성, 농장 계백료서, 과거제, 광종의 연호 사용, 전시과 제도, 강조의 정변(1009), 별무반, 묘청의 난, 삼별초, 다루가치, 정동행성, 성리학, 국사와 왕사, 상감법, 7

	대 실록
신사고	노비안검법, 경학박사, 향·부곡·소,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 칭제건원, 군인전, 삼별초, 동녕부·탐라총관부, 권문세족, 기철, 흥건적, 성리학, 만권당, 돈오접수, 정혜쌍수
지학사	고려의 후삼국 통일 기반, 전시과, 나성, 별무반, 중방, 삼별초, 조위충의 난(1174), 다루가치, 대장경 판목, 공녀, 도평의사사, 배흘림기둥 양식, 주심포 양식
천재 교과서	별무반, 묘청, 도방, 삼별초, 다루가치, 정동행성, 이문소, 전민변정도감, 과전법, 결사운동, 라마교
천재 교육	미륵불, 경순왕, 사심관제도, 기인 제도, 과거제, 향·부곡·소, 국자감, 강조의 정변, 별무반, 무신의 지위, 기철, 전민변정도감, 성리학, 과전법, 도기와 자기, 상감 청자, 실록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이나 읽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주제를 다른 교과서에서는 좌우여백 주로 간단히 설명을 대체하고 있다. 좌우여백 주에는 주로 제도와 기구에 대한 설명이 많았다.

## 2. 삽화 및 지도의 구성

### 1) 태조의 동상과 관복

태조 왕건은 고려 건국 당시부터 연호를 사용하며 고려를 황제의 나라로 인식하였다. 광종대에 재차 칭제건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전 장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광종의 칭제건원은 왕권 강화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6> 고려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사진 자료

	
수창궁 용머리 석상 (신사고 110쪽)	황제 글자가 세겨진 하남 교산동 마 에 약사여래 좌상 (천재교육 117쪽)

각각의 교과서에서는 고려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사진자료를 다양하게 제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각 자료로 가장 우수한 것은 역시 고려왕의 복식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원간섭기 이전의 고려 왕은 금색 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삽화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7> 붉은 관복의 왕건 삽화

		
<p>발해유민을 맞이하는 태조 (미래엔 108쪽)</p>	<p>거란의 선물을 거절하는 태조 (지학사 116쪽)</p>	<p>발해 유민을 맞이하는 태조 (지학사 117쪽)</p>

태조 왕건 상은 청동으로 제작되어 태조 왕건의 무덤인 현릉 부근에서 발굴되었다. 왕건 상으로 추정되는 근거로 통천관을 들 수 있는데 통천관은 황제가 사용하는 관이다. 교학사와 지학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왕건의 동상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왕건 동상의 핵심은 왕건의 생김새가 아니라 왕건이 쓰고 있는 통천관에 주목해야한다. 그러나 두산동아, 비상교육, 신사고, 천재교육에서는 왕건의 동상만을 제시할 뿐 통천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통천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면 사진 자료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 2)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용두사지 철당간(충북 청주) 당간에는 광종의 연호인 준풍이 새겨져 있다.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광덕·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미래엔 109쪽)

광종 때 만들어진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국보 제41호, 충북 청주) 청주 시내에서 발견된 철당간을 통해 당시 절의 규모와 위치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천재교과서 117쪽)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의 설명이다. 광종 때 만들어진 철당간을 설명하면서 절

의 규모와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철당간의 핵심은 광종의 연호가 기록되어 있어서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재교과서는 핵심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만약 이 자료 사진이 문화사 단원에서 제시되었다면 천재교과서의 설명이 바람직하겠지만, 고려 초기 왕권 강화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의 설명으로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미래엔의 서술과 같이 광종대에 연호사용의 증명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 3) 과거제

교학사, 두산동아, 비상교육, 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은 관리등용제도를 금성, 미래엔, 천재교과서는 과거제를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도식을 관리등용제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본다면 무관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학사, 천재교과서처럼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마다 문과와 음서로써 진출하는 관직에 대하여 관료 혹은 문관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관료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고급관리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전체적인 관직을 놓고 본다면 기술관과 승계를 포함하는 공직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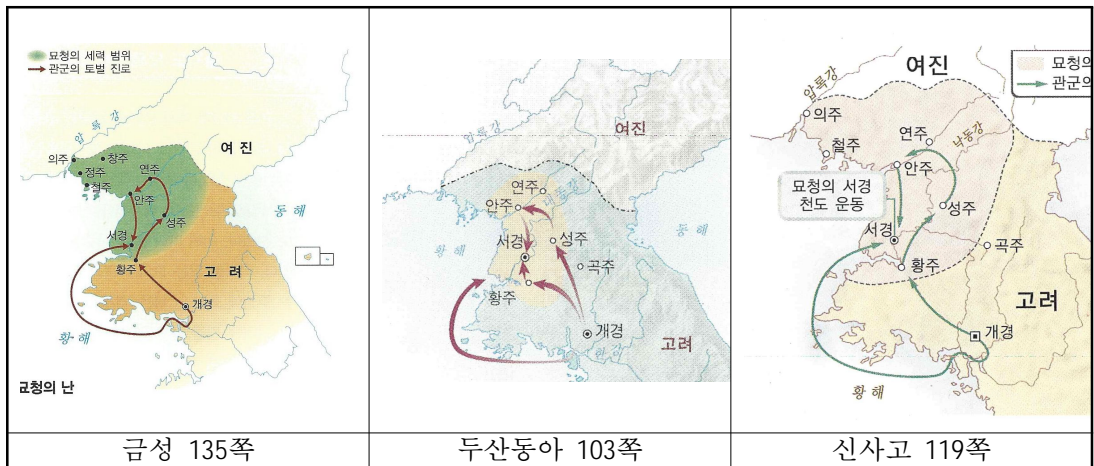
<표 28> 관리 등용제도와 과거제 도식

<p>○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p>	<p>○ 고려의 과거제</p>	<p>○ 관리 등용제도</p>	<p>○ 과거제</p>	<p>○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p>
<p>교학사 115쪽</p>	<p>금성 129쪽</p>	<p>두산동아 97쪽</p>	<p>미래엔 112쪽</p>	<p>비상교육 121쪽</p>
<p>○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p>	<p>○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p>	<p>과거제*</p> <p>○ 과거제</p>	<p>○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p>	
<p>신사고 113쪽</p>	<p>지학사 120쪽</p>	<p>천재교과서 119쪽</p>	<p>천재교육 119쪽</p>	

#### 4) 묘청의 난과 진압과정

『高麗史』 열전 김부식편을 보게 되면 김부식은 평주에서 성주로 군사를 곧장 이끌고 간 것으로 나와 있다. 신사고에서는 황주에서 성주로 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두산동아의 진로 표기처럼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은 성주로 향하고 항복사절을 서경으로 보냈다는 것이 옳다. 성주에서 관군의 진로가 두산동아에서는 안주로 바로 가버리는데 연주를 경유해서 안주로 가는 것이 맞다. 김부식은 안주로 이동하였지만 관군이 연주를 경유해서 왔다는 『高麗史』의 기록으로 보아 화살표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다. 묘청의 세력 범위에 관련한 기록은 양계에 군사를 모았다고는 하지만 실제 토벌에 들어가면서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금성이나 신사고에서와 같이 관군의 진로와 동일하게 잡는 것이 적합하겠다.<sup>58)</sup>

<표 29> 묘청의 난 진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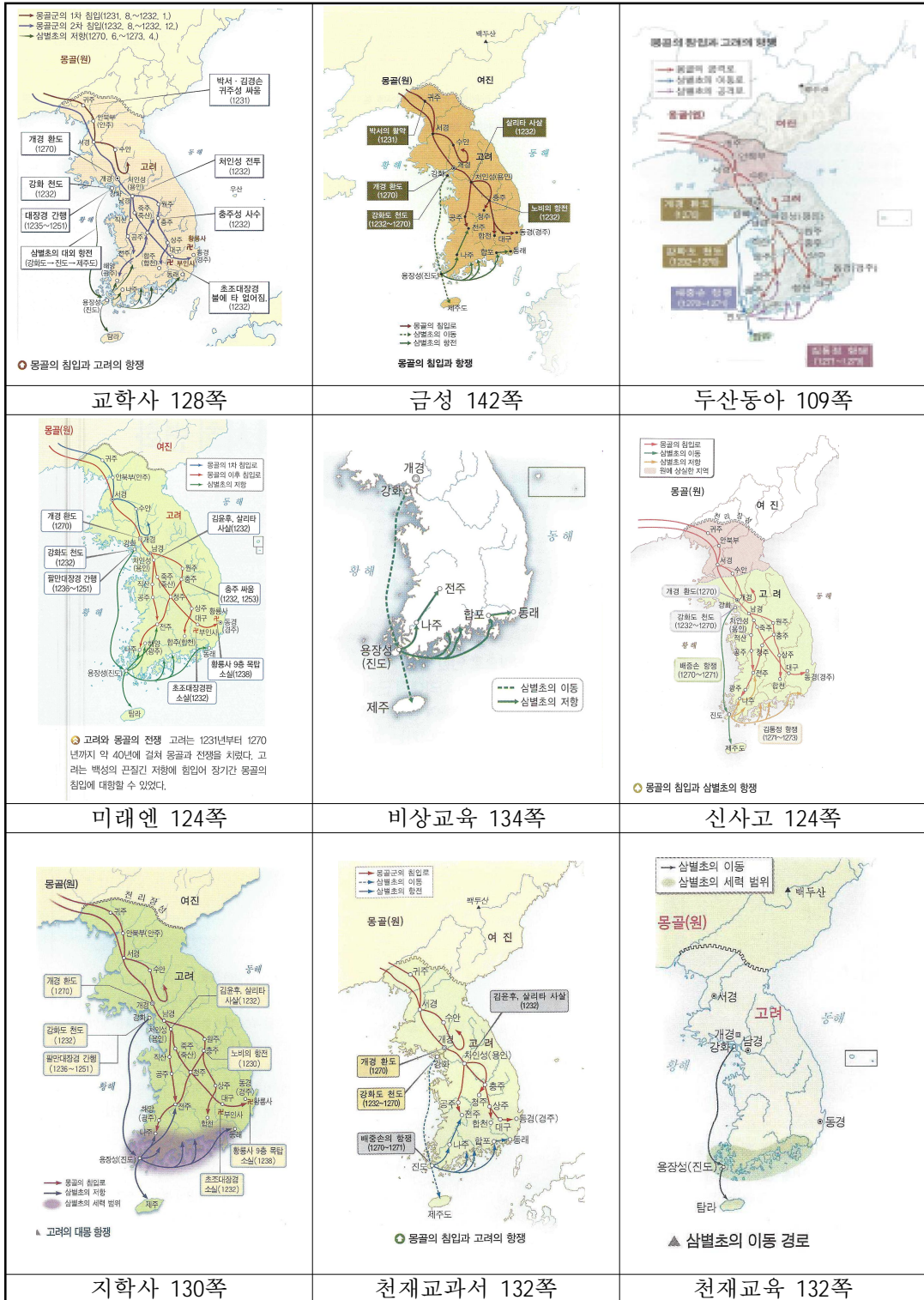


#### 5)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

다음은 몽골 침입과 고려의 항쟁을 나타낸 지도들이다. 교학사, 금성, 미래엔, 지학사는 고려의 전체적인 항쟁을 지도에 표시하였고, 두산동아, 비상교육, 신사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은 삼별초의 항쟁을 중심으로 지도에 표시하였다.

58) 『高麗史』 卷98 「列傳」11. 김부식 遂引兵, 由平州趣管山驛, 左·右軍皆會, 聯次以行. 富軾由射岩驛·新城部曲, 徑到成州, 休兵一日, 馳檄諸城, 諭以奉辭討賊之意. 遣軍史盧仁諧, 招諭西京, 且覘城中虛實. 引諸軍, 道漣州, 抵安北大都護府, 淑·周衍等, 自東界來會. 前此, 遣錄事 金子浩等, 懷勅間行, 歷兩界城鎮, 告諭西人反狀, 人心猶懷顧望. 及大軍至, 列城震懼, 出迎官軍.

<표 30>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



대몽항쟁기 제주는 탐라가 아니라 제주로 불리고 있었다.<sup>59)</sup> 교학사, 금성, 미래

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의 경우에는 삼별초의 이동과정 중 진도를 용장성(진도)라고 표기하는 반면에 제주에는 항파두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다. 일치성을 위해 항파두성(제주)라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두산동아, 신사고에서는 진도에서 배중손의 항쟁과 제주에서 김통정의 항쟁을 모두 표시하고 있으나 천재교과서에서는 진도에서 배중손의 항쟁만을 표시하고 제주에서의 항쟁은 생략하고 있다. 삼별초의 세력 범위에 관해서 천재교육에서는 남해안과 제주를 포함하는 권역을 표시하고 있지만, 지학사의 경우에는 남해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두산동아의 경우 수안 이북 권역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두산동아의 지도설명에 원에 상실한 지역이라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다. 두산동아와 신사고에서는 수안 이북지역만을 원에 상실한 지역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제주 또한 원이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직할령으로 지배하였기 때문에 원에 상실한 지역에 제주를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두산동아와 천재교과서에서는 지도의 제목이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이라고 하기엔 고려 항쟁 사건들의 생략이 많다. 두산동아에서는 삼별초의 항쟁만을 표시했으며, 천재교과서에서는 삼별초(배중손)의 항쟁과,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사건만을 표시하고 있다. 적어도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귀주성의 박서, 충주성의 관노비, 처인성의 처인 부곡주민의 항쟁 등을 지도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6) 최씨 정권의 농장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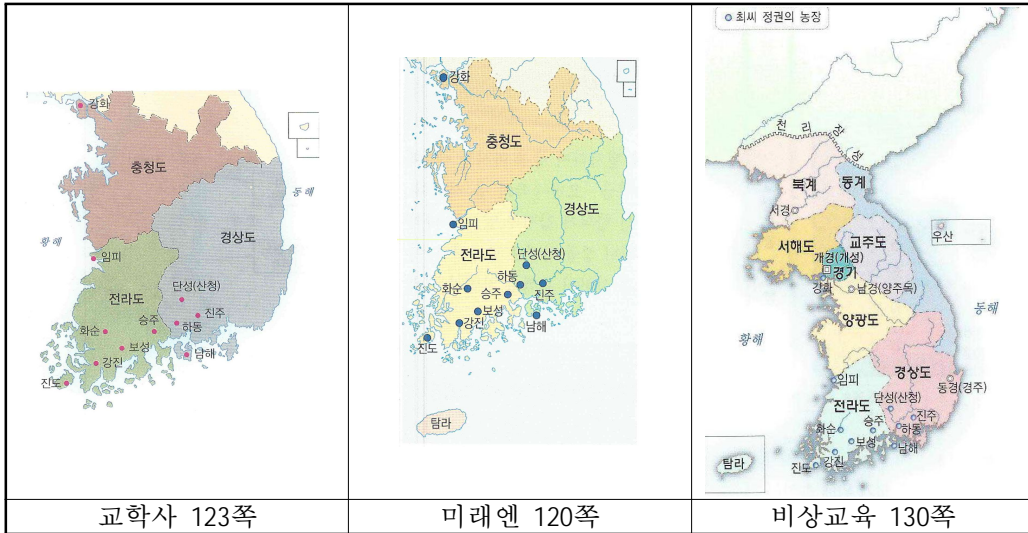
교학사와 미래엔 비상교육에서 나온 5도 양계와 최씨 정권기 농장분포도의 지도이다. 최씨 정권기 농장 분포지도에서 교학사와 미래엔은 같은 지도를 사용하고 있고 비상교육은 다른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최씨 정권의 농장을 나타내면서 이전의 5도 양계를 나타내는 지도에서는 양광도였던 것이 이시기에는 충청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지경 또한 변경되었다. 교학사와 미래엔의 지도에는 영월과 평창이 충청도의 권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高麗史』를 살펴보면 영월과 평창이 충청도에 속하게 된 것은 최

59) 『高麗史』 卷25 「世家」25 원종 11년 十一月 己亥 賊陷濟州.

씨 정권이 물러난 다음해다.<sup>60)</sup> 『高麗史』를 살펴보면 양광도는 예종 원년에 양광 충청주도로 원종 원년에 2개 도로 분할되었다가 충숙왕 원년에 양광도가<sup>61)</sup> 되었고 지리지에서 양광도로 분류되어 있기에 양광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표 31> 무신집권기 최씨 정권 농장 분포도



### 7) 이영의 향리 청원

탐구 활동은 이영이 아버지의 향리직을 이어받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실무 직원이 절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자 과거를 보고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내용이요. 자료의 본래 목적은 향리도 과거를 보고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서술되었다.

삼화 이해를 위해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자면, 삼화의 실무직원 직책은 政曹主事이다. 정조주사는 이속으로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sup>62)</sup> 그러나

60) 『高麗史』 卷58 「地理志」12 高宗 … 四十六年, 以忠清道之寧越·平昌 來隸 後還其道. 元宗四年, 稱江陵道. 忠烈王十六年 以寧越·平昌 復來屬.

61) 『高麗史』 卷56 「地理志」10 楊廣道 本高句麗·百濟之地(漢江以北 高句麗. 以南 百濟.). 成宗十四年, 分境內 爲十道. 楊州·廣州等州縣 屬關內道 忠州·淸州等州縣 爲忠原道 公州·運州等州縣 爲河南道. 睿宗元年 合爲楊廣忠淸州道. 明宗元年 分爲二道. 忠肅王元年 定爲楊廣道. 恭愍王五年 爲忠淸道. 領京一 牧三 府二 郡二十七 縣七十八.

62) 현종 대 장리의 공복 제정에 있어 공복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록상으로 남삼(藍衫)이 있다. 남삼에 관해서는 산정도감 관관이었던 문극겸(1122~1189)의 기록이 선거지와 열전에 있다. 내용은 남삼을 입은 자가 과거에 응시하는 횟수에 관한 것인데, 그 한계를 연장하는데 관한 기록이다. 여북지에 남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전에도 남삼을 입는 자는 참외관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어 신중환



실무직원이 하급관리로 표현되어야 내용전개에 적합하겠지만, 삽화에서는 실무직원이 단삼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어 고위직 관리로 표현되고 있다. 관리가 화를 내는 삽화보다는 관리의 직급을 인식할 수 있는 수정이 필요하다.


<표 32> 이영의 향리 청원<sup>63)</sup>

아삼  
상  
단삼  
상

급급증 해결!

“향리도 과거에 합격하면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나요?”

이영은 안성군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이충선은 고을의 호장(상급 향리) 출신인 증류층이었습니다. 이영은 아버지가 죽은 후 토지를 물려받아 서리가 되려고 하였어요. 이영이 청원서를 실무 직원에게 내면서 인사를 하는데 허리만 굽히고 절을 하지 않았더니 실무 직원이 화가 나서 이영을 꾸짖었습니다. 이영은 그 자리에서 청원서를 찢어 버리면서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조정에서 벼슬을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라고 하였어요. 이후 이영은 숙종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고위 관리가 되었답니다.



열린 생각 신라 시대 관리 등용 제도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8) 사회상을 나타내는 그림/삽화 자료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사·문화사 중심의 서술이기 때문에 사회사가 축소 혹은 생략된 부분이 발생하였다. 각 교과서에서는 학습 보조자료를 통해서 고려의 사회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나누어 고려의 귀족 문화와 민중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삽화 자료를 찾아보았다.

비상을 제외한 8종 교과서에서 제시한 아집도대련은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에서 고려 시대 귀족들의 일상을 표현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청자는 고려 시대 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대변하는 문화재로 그 종류가 접시와 병뿐만 아니라 향로, 기와, 베개 등으로 용도 또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교과서별 청자

분석이 필요하다. 산정도감 관관은 읍서직으로 일반인은 10번도 응시할 수 있는 과거를 남삼을 입은 자는 3번까지만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제기하였는데(이승해, 「고려시대 官服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94쪽), 이를 추측해보았을 때 관복의 색을 남삼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63) 조란옥 외 10인, 『역사(1)』, (주)비상교육, 2013, 121쪽.

사진은 3장에서 11장으로 개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교학사, 금성, 두산, 미래엔, 비상교육에서는 고려시대 귀족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는 장신구와 잔·잔받침 등을 제시하여 화려한 생활을 하였던 귀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나전 칠기 사진을 제시한 것도 앞선 다섯 출판사 뿐이었다. 천재교육에서는 칠기에 대한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화는 고려 시대에 불교의 융성과 귀족적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작품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기법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는 유물이다. 지학사에서는 회화에 대한 설명이 제외되어 있어 불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지학사를 제외한 8종 교과서에서 관음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금성의 경우에는 화엄경변상도, 수월 관음도와 혜허의 양류관음도는 귀족적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종교 미술품으로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나전칠기와 청자가 귀족 문화의 대표 공예품이라고 서술하면서 정작 사진이 없다.

사경도 불화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귀족적 모습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인데 고려 사경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금으로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호화로운 귀족들의 모습을 한층 더 강조해주는 자료가 된다. 사경에 대한 자료는 교학사, 금성, 지학사에서 화엄경변상도로 제시하고 있다.

<표 33> 귀족사회를 보여주는 사진·삽화 자료

	교학사	금성	두산 동아	미래 엔	비상 교육	신사 고	지학 사	천재 교과 서	천재 교육
아집도대 련	○	○	○	○	-	○	○	○	○
청자기와 기타	-	○	○	○	-	-	○	○	-
공예품	○	○	○	○	○	-	-	-	-
나전칠기	○	○	○	○	○	-	-	-	-
청자	○	○	○	○	○	○	○	○	○
서예	-	○	-	-	○	-	-	-	-
음악	-	○	-	-	-	-	-	-	-
관음도	○	○	○	○	○	○	-	○	○

이와는 반대로 백성들의 삶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자료는 거의 없다. 교

학사와 지학사에서는 미륵하생경변상도에서 농민들의 농사짓는 모습을 제시하고, 삽화를 사용하여 무신과 권문세족들의 농장 확대에 의한 백성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삽화로 그려내고 있다. 삽화는 글로 서술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나타냄으로써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와 중학교 9종 『역사(1)』 교과서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역사교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중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수시개정체제로 변화하였다. 수시개정체제로 10년이 못된 시점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4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시대적 필요성과 부족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항속성과 안정성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도 즉각 대처해야 하기에 교과서 사용기간과 제작기간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습량 감소이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 이전 교육과정보다 20% 학습량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려 시대는 다른 시대와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두 개의 대단원으로 나뉘었던 것이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 단원으로 축소되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학업성취 기준 또한 9개에서 5개로 감축되었지만, 내용 감축이 아닌 기준들의 병렬적 결합이었다. 이에 반해 출판된 교과서의 분량은 이전보다 약 30% 축소되어 학업량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정치사·문화사 중심의 교과서 서술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사와 사회·경제사를 중심의 교과서가 서술을 요구했다면,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교과서 서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한정하여 실제 출판된 교과서를 분석해 본다면, 서술 중에 사회사와 경제사가 제외되었을 뿐 이전 교과서에 비해 분량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문화사가 특별히 강조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 따라 저술된 교과서 비교연구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설서 단계의 교재인 만큼 전문 연구가들의 세부 연구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전 교과서와의 비교 과정의 경우 『역사(상)』의 고려 시대와 새로 사

용하는 교과서의 저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새롭게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1)』 9종 교과서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을 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교과서 저자의 자율성에 따른 다양한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단원 편성에 있어 교육과정이 제시한 5단원 체제가 아니라 4단원 체제를 선택한 출판사가 다수 존재하였다. 학습 목표와 발문 또한 출판사별 제시 형태나 분량이 다양하였다. 내용 서술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사회·경제사를 제외하고 서술한 출판사가 있는 반면 본문이나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부연설명을 하는 출판사도 존재하였다. 특히 고려의 문화 단원에서 사상 관련 서술 분량은 출판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둘째, 외형적인 모습만을 달리하였을 뿐 정치사 서술과 학습 보조 자료에 있어서는 교과서별 특색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서술상 저자의 견해 차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던 부분은 묘청의 난에 대한 서술방식이었다. 학습 보조 자료에 있어서도 9종 교과서 지도와 도식자료 및 문화재 사진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 단원이나 형식 사진이 대동소이하여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이번 교육과정의 서술 목표는 정치사·문화사 중심의 서술인데 상대적으로 문화사 서술이 부족했다. 대단원 시작의 개괄적 설명에서부터 문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 집필지침에 나와 있는 고려 전·후기에 발달한 문화의 특징 서술에서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시대 구분을 하지 않은 채 서술하는 경향이 다수였다. 본문 서술에서는 구체적 설명을 생략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화재라고 이유를 생략한 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과 『역사(1)』 IV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의 특징을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습량 감소는 교과서의 분량을 축소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달아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삽입하여도 무관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결국 교과서 작성에서 제외되었던 경제사와 사회사가 교과서 본문이나 읽기자료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필지침에 있지 않은 사상사 부분을 과감하게 제외한 천재교육처럼 저자들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진정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면

중학교 수준에서 서술해야할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번 2011 부분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정치사·문화사 중심의 서술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사 중심에 문화사가 첨부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문화부분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5개의 성취기준 가운데 하나로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한 부분이다. 대안으로 통시적으로 구분된 성취기준 속에 문화사를 같이 서술한다면, 문화사의 비중이나 시기별 특징비교 같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검정 교과서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한정된 분량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틀을 넣으려다보니 실제 교과서 서술과정에서 저자별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내용서술은 차치하더라도 학습 보조 자료에 있어서도 출판사별 차이가 없었다. 문화재 사진이나 지도 및 도식자료에 있어서 교육과정상의 지침이나 저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에 의해 공통된 자료들이 사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부분이야 말로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교과서 제작은 그 중요성이 비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에서의 부분적 오류는 다음 인쇄 시 수정하면 되지만, 교육과정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 교육과정 개정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체제가 수시 개정이 가능해진 장점이 있지만, 잘못이 발견되었다 하여 서둘러 수정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뒤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교과서 제작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던 사실이지만, 충분한 기간과 검토 과정을 거쳐 올바른 교과서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교과서

#### 1) 8종 교과서

- 신영범 외 11인, 『역사(상)』, (주)교학사, 2010.  
양호환 외 8인, 『역사(상)』, (주)교학사, 2010.  
조승래 외 9인, 『역사(상)』, 대교, 2010.  
이문기 외 16인, 『역사(상)』, 두산동아, 2010.  
정선영 외 7인, 『역사(상)』, (주)미래엔, 2010.  
조현욱 외 10인, 『역사(상)』, (주)비상교육, 2010.  
정재정 외 7인, 『역사(상)』, (주)지학사, 2010.  
주진오 외 8인, 『역사(상)』, 천재교육, 2010.

#### 2) 9종 교과서

- 양호환 외 7인, 『역사(1)』, (주)교학사, 2013.  
김형중 외 12인, 『역사(1)』, (주)금성출판사, 2013.  
이문기 외 19인, 『역사(1)』, 두산동아(주), 2013.  
정선영 외 8인, 『역사(1)』, (주)미래엔, 2013.  
조란욱 외 10인, 『역사(1)』, (주)비상교육, 2013.  
한철호 외 11인, 『역사(1)』, (주)좋은책신사고, 2013.  
정재정 외 10인, 『역사(1)』, (주)지학사, 2013.  
김덕수 외 13인, 『역사(1)』, (주)천재교과서, 2013.  
주진오 외 13인, 『역사(1)』, (주)천재교육, 2013.

### 2. 사료 및 보도자료

#### 『高麗史』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요』,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2007.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2007 개정 교육과정[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2009.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0호, 『2009개정 교육과정[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부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안)」, 2011.8.31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12. 17.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과용도서(국어·도덕·역사·경제) 집필기준 확정·발표」, 2011.11.8.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교과교육과정개정의 이해」, 2012. 10. 9.

### 3. 연구저서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탐구당, 2002.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김한중,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함께, 2008.  
김한중,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10.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 4. 연구논문

- 강현욱·김민정, 「논문 : 역사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평가 연구 - 중학교 『역사(상)』 고려 단원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49, 역사교육학회, 2012.  
金九鎭, 「高麗時期 對外關係의 研究方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金九鎭, 「중등학교 國史教科書에 있어서 北方關係敍述」, 『歷史教育』37·38, 歷史教育研究會, 1985  
金鎔坤, 「高麗時代 思想史 研究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김성자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교육내용 적정화 담론의 수용과 굴절」, 『歷史教育』121, 歷史教育研究會, 2012.  
김인호, 「제7차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려시대 정치사 내용 분석과 개선 방향」, 『역사와 실학』36, 역사실학회, 2008.  
金翰奎, 「高麗崔氏政權의 晉陽府」, 『東亞 研究』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남인국, 「국사교과서의 서술과 고려시대 정치세력 연구동향」, 『역사교육논집』23·24, 역사교육학회, 1999.  
朴龍雲, 「高麗時代 中央政治體制에 대한 研究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朴宗基, 「高麗時代 郡縣制 研究聖果와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 배정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화사 내용 구성 방식 검토」, 『역사와교육』3, 역사교육연구소, 2011.
- 서인원,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의 비교 분석 : 6차·7차 교육과정 고려시대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26, 역사실학회, 2004.
- 윤용혁·문경호, 「국사 교과서 속의 몽골 관련 서술」, 『교과교육학연구』15-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1.
- 이문기·남한호 「특집 : 새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활용방안 모색;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역사 교육, 그리고 이후의 변화」, 『역사교육논집』47, 역사교육학회, 2012.
- 李炳熙, 「高麗時期 經濟制度 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4, 歷史教育研究會, 1988.
- 이지홍·박현숙, 「다문화 관점에서 본 중학교 <역사(상)> 교과서의 '귀화인' 서술과 인식」, 『교과교육연구』4-2,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1.
- 장희홍, 「기획논문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상)』의 고려시대 서술체제와 내용 분석」, 『동국사학』51, 동국사학회, 2011.
- 천은수, 「오개념을 형성하는 고려·거란관계 역사 교과서 분석」, 『역사교육연구』14, 한국역사교육학회, 2011.
- 홍영의, 「북한 《조선전사》의 서술경향과 그 성격 : 고려 대외투쟁사를 중심으로」, 『군사』27, 국방군사연구소, 1993.
- 황인규, 「中等 國史教科書에서의 高麗後期 佛敎史 敍述과 그 問題點」, 『역사와교육』9, 역사와 교육학회, 2000.

## 5. 학위논문

- 강민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공민왕대 개혁정치 서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윤미, 「남북한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대외항쟁사 비교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은혜,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고려시대의 불교관계 서술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은희, 「의천과 지눌에 관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의 분석 : 5, 6,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일구, 「남북한 국사 교과서 고려시대 서술 비교 : 중학교 『국사』와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형준, 「남북한 중학교 교과서의 고려시대 대외항쟁사 서술체제와 내용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노보영, 「남북한 국사교과서의 고려사 서술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류길호, 「고려시대 해상활동과 초등 사회교과서의 고려시대사 서술」,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문운석, 「6차·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내용 비교분석 : 고려시대 사회·경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민유미, 「2009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고려 대외관계 내용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미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고려불교사 서술의 검토 : 천태종과 조계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민정, 「제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중세문화 중 불교사상과 신앙 서술내용 검토 : 불교사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선희, 「13세기 고려민의 대몽동향과 국사교과서의 서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외숙, 「북한 중등교과서의 고려시대사 서술내용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의동, 「남북한 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창수, 「南北韓」 현행 中等 國史 教科書 비교 분석 : 先史時代에서 高麗時代까지」,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철규, 「남한의 7차 교육과정 중등 『국사』와 북한 고등중학교 4학년용 『조선력사』(2001)의 비교 분석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홍민, 「초등 사회과 교과서 대외 관계 역사 서술의 내용 분석 : 6학년 1학기 고려시대 국난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배기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의 계열성 연구 : 고려시대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백정화, 「교과서 변천과정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려시대 서술」,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서지애, 「제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려의 대외관계 서술 내용 검토」,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안홍진,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 분석 : 고려시대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유지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한중관계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 : 원간

- 섭기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유화정, 「국사교과서 고려시대 대외관계사의 담론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유혜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려시대 삽화자료 분석 : 6차와 7차 교과서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윤경운, 「고교국사교과서(50~80年代)의 내용에 관한 연구 : 고려시대 인물의 분석작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승해, 「고려시대 官服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은숙, 「고려·거란 전쟁에 대한 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강석, 「초등학교 교과서의 고려시대사 내용 분석 6학년 1학기 :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장유리, 「중학교 역사(상)교과서의 고려시대 대외관계 서술에 대한 내용분석 : 다원적 역사이해의 관점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장정근, 「고려 무인정권에 대한 연구현황과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최경미, 「북한 역사 교과서의 고려시대사 서술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서영,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고·중세 문화사 단원의 서술내용 검토」,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지은, 「『고려사』와 교과서 서술 비교분석 : 묘청의 난과 삼별초의 난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예진, 「고려 수취제도 관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홍미경, 「南北韓 國史教科書의 敘述 比較 : 高麗時代를 中心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Abstract

An Analysis on the Lesson IV of the Middle School  
History (1) Textbook, Foundation and Transformation of  
Goryeo

Kim, June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extbook is a learning medium which i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urriculum. The National Curriculum System came to adopt the constant revision system after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2007, and the History textbooks have been revised four times since then. Such changes of the curriculum and the textbooks brought confusion to the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field. Producing highly accurate textbooks is all the more imperative for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s they may be used by teachers not majoring in history education.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2009, announced in 2011,

required that the contents of the history subject be reduced by 20% and the textbooks focus on presentation of the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the number of lessons on the Goryeo Period went down from 2 to 1, while the number of achievement elements decreased from 9 to 5. Such reduction was only superficial, however, as there was no substantive reduction of the learning contents of the subject.

By analyzing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2009 and Foundation and Transformation of Goryeo part of the 9 History (1) textbooks, the author could distinguis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a diverse variety of textbooks has been published under the Textbook Screening System. Second, despite the diversity of their physical appearances, each of the 9 textbooks was not particular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ir presentation of Korea's political history and their supplementary learning materials. Third, even though the 2009 National Curriculum demanded historical presentation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the textbooks were relatively lacking in their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history.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author would like to make a few suggestions. First, it should b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reduction of student workload in a curriculum cannot be achieved by reducing the volume of the textbook. If such workload were to be reduced, there should be a clearer guideline on the contents to be described at the middle school level.

Also, there is an issue about autonomy, which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Textbook Screening System. The 9 textbooks were not particul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ir presentation of Korea's political history and their supplementary materials. While some degree of overlapping materials is understandably unavoidable, the current status suggests the need for the authors

to make efforts to include new materials.

While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demanded historic presentation focusing on the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the actual result was that the cultural history was simply attached to the political history which was at the center of the presentation. Such result seems to reflect a structural problem. By incorporation the cultural history into diachronically divided achievement standards, various issues such as the relative weight of the cultural history and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ra will be resolved by themselves.